

(3) <월간조선>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 내용 등을 열거한 뒤 “이 영화가 국군진압을 양민학살로 지나치게 부각시켰다”고 주장했다.

“장면 21 : 이른 새벽. (10월) 23일 순천이 탈환됐다. 군경은 부역자를 색출한다는 이름으로 피의 보복을 시작했다. 그냥 죽어야만 했다. 의심만 가도, 손가락질만 당해도 아무런 저항도 없이 죽어야만 했다. 눈먼 총부리의 역사. 이것이 한국사의 최대 비극, 집단 민간인 학살의 시작이 될지는 역사도 모르고 있었다. 그 시절의 군인과 경찰은 삶과 죽음의 감별사였다.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였다. 초등학교에 수천명씩을 모은 뒤 정확한 판단도 없이 의심만 가면 그 자리에서 수십명씩 죽었다.”

그러나 앞에서 칼-마이던스 기자의 증언에서도 확인했듯이, 이 내용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들이다. 다소 내용이 길긴 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향토사학자 김계유 씨의 말을 들어보자.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끌려왔던 사람들은 곧 ‘심사’라는 것을 받게 되었다. 그제서야 여기 끌려온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생존 경찰관을 선두로 우익진영 요인들과 진압군 병사로 이루어진 5~6명의 심사요원들이 시민들을 줄줄이 앉혀놓고 사람들의 얼굴을 쓱 훑고 다니가다 ‘저 사람’ 하고 손가락질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교사 뒤에 파놓은 구멍이 앞으로 끌려가 불문곡직하고 즉결처분(총살)되어 버렸다. 그 자리에는 일체 말이 필요 없었다. 모든 것이 무언(無言)인 가운데 이루어졌다. 사람을 잘못 봤더라도 한번 찍혀 버리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임사호천(臨死呼天)이라고 사람이면 누구나 죽게 되면 하늘을 부른다고 했다. 그때 여수 사람들의 심정이 바로 그랬다.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정문에서는 간혹 소탕 작전에서 잡혀오는 것으로 보이는 파리한 물골의 앳된 젊은이들이 2~3명씩, 혹은 4~5명씩 묶여와 교사 뒤로 끌려가면 어김없이 탕탕 하는 기분 나쁜 총소리가 뒤따라 사람들의 가슴을 얼어붙게 했다.(김계유, 「1948년 여순봉기」, <역사비평> 겨울호, 283~284p)

실제로 이날 진압과정의 지나쳤다는 고백은 당시 진압군 측에서도 나온 바 있다. 백선엽 장군은 <실록 지리산>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

의 성화로 조급하게 이뤄진 작전으로 시가지에 대한 무차별 포격이 이뤄져 많은 시민의 희생을 낳았다”고 일부나마 그 잘못을 시인했다. 따라서 영화 「애기섬」이 “국군의 반란군 진압을 근거도 없이 비방”(〈월간조선 2001년 10월호, 225p)했다는 <월간조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근거 없는 비방’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월간조선>은 여순사건 당시 조선일보에 실린 이런 기사를 가슴에 손을 얹고 읽어보기 바란다.

나는 상사의 명령으로 순천탈환전에 참가했을 때에도 솔직히 말하면 반군에게 아무런 증오감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순천시에 돌입하여 시가 대로상에 동지들의 시체가 늘비하게 널려 있는 것을 보고 나서는 병사들이나 나 자신이나 별안간에 불길 같은 증오감이 솟아올랐다. 하지만 순천을 완전 점령한 지금에도 나는 ‘점령’이라는 말을 결코 쓰려고 하지 않는다. 동족간에 자국 내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는 데 점령이 무슨 점령이란 말인가? 나로서는 피눈물 나는 싸움이었다.(조선일보 1948. 11. 23. 「정비석: 여순낙수(2)」)

(4) <월간조선>은 또 하나의 편향적인 왜곡보도를 하는데, 종군기자인 이경모의 사진 중에서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것만을 가져다가 소개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종창 기자는 “여수시 탈환작전 때 종군기자단은 군을 따르고 있었다. 전 호남신문 사진부장 이경모 기자도 종군기자의 한 사람이었다”고 언급한 뒤 “그가 찍은 한 장의 사진, 아기를 업은 채 경찰관 남편의 시신을 찾고 있는 사진은 이 사건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단정했다. <월간조선>은 실제로 이 사진을 기사 첫 페이지에 소개하기도 했다. 원래 이 사진의 출전은 이경모의 사진집 <격동기의 현장>인데, 문제의 사진은 이 책의 66쪽과 67쪽에 걸쳐 수록돼 있다.

그런데 이 사진 바로 뒤에는 또 다른 성격의 사진이 있거니와, “경찰은 반란군에 쫓겨 후퇴하면서 가뒤통수고 있던 좌익 사상범 용의자들을 무차별 학살하고 갔다. 서울대 법대에 다니다 고향에 내려와 은신하고 있던 김영배(당시 21세)가 그런 희생자 중의 하나였다. 그의 가족들이 광양과 순천의 경계에 있는 덕레리 골짜기에서 아들의 시신을 찾아내 거두고 있다”는 설명이 붙어 있는 사진이 바로 그것이다.(이 사진은 이 책의 표지 사진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김영배와 친구인

이경모는 자신의 회고문에서 “그는 어려서부터 서로 잘 아는 사이로 결코 공산당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당시의 대학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고향에 내려와 공부를 하다가 대학 사정이 좀 안정되면 다시 상경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좌익 사상범 용의자로 광양경찰서에 예비검속되어 반란군에 쫓겨 후퇴하던 경찰관에 학살당한 것이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더욱이 이 사진집의 뒤 표지에는 한 사진작가의 이런 발문이 적혀 있다는 사실을 <월간조선>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경모의 사진들은 이미지의 힘을 통해 8·15 해방에서부터 여수·순천 사건을 거쳐 6·25에 이르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고리들을 우리의 눈앞에 또렷이 부각시켜 준다. 물론 사진이 항상 진실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사진이 진실을 말해주는 경우는 어떠한 편향된 의도나 오해에도 물들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할 때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경모의 사진들은 감동적이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하며, 때로는 우울하기도 한 여러 장면들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편향없이 보여준다.

결국 <월간조선>은 한 사진기자가 ‘편향 없이 객관적 입장을 견지한 채 기록한 역사적 진실’마저 놀랍게도 ‘편향되게 악용하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월간조선>의 보도태도에서 두려움과 동정심이 동시에 느껴지는 대목이다.

(5) <월간조선>은 기사에서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5·10 총선거를 교란시키기 위해 일으킨 무장폭동’이라고 규정한 제주4·3사건을 이 영화에서는 4·3항쟁이라고는 용어를 사용, 폭동을 의거 수준으로 미화시켰으며 여순 14연대 반란사건도 그냥 여순사건이라 호칭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월간조선>은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의 고정된 역사인식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시비를 걸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한탄’과 ‘분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영일 소장은 “고등학교 국정 교과서에도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회단체와 연구학자들이 50년만에 어렵게 바로 세운 ‘여순사건’을 <월간조선>이 다시 ‘여순반란사건’으로 만들어

놓았다. <월간조선>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지역사회의 민감한 정서 때문에 사건 발생 53년이 지난 올해 겨우 출범한 여순사건 유족회 여수지역 회장 김상태씨는 “유족의 아픔을 이해한다면 더 이상 색깔론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라며 분노했다.(나권일, <시사저널>, 2001. 10. 25.)

이 기사의 제목이 「10·19 여순 ‘영화불발’ 사건」이거니와, <월간조선>은 여순사건이 국사교과서 197쪽 도표에 분명히 ‘여수순천10·19사건’이라고 객관적 용어로 기술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월간조선>이 ‘전가의 보도’로 삼고 있는 국사교과서를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전향적으로 개편하려던 시도를 ‘색깔 논쟁’을 동원해 좌절시킨 장본인이 정작 조선일보 아닌가. 애시당초 그들에게 교과서 타령을 할 자격이 없었다는 말이다. 문민정부 시절 조선일보가 불을 지르면서 ‘더러운 논쟁’(?)에 휘말려들었던 이른바 ‘국사교과서 준거안 파동’의 전말은 이렇다.

1993년 9월 교육부는 제6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국사교육 내용전개 준거안 연구위원회’(위원장 이준희 서울시립대 교수)를 구성하고 9명의 연구위원을 임명했다. 이들은 7개월에 걸친 공동연구를 통해 국사교과서 개편작업을 추진했으며, 마침내 1994년 3월 18일 심포지엄을 열고 연구위원 전원합의로 확정된 ‘준거안’을 발표했다. 특히 현대사 부분 준거안 중에서도 새롭게 보강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시선을 끌었다.

-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좌우합작 운동이 어떻게 전개됐는가를 기술하고, 9월 총파업과 10월항쟁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다.
- 반민법 제정, 농지개혁 등 건국 초기의 활동과 제주4·3항쟁, 여순사건 등을 이해하게 한다.

이 준거안은 당시 역사학계의 학문적 업적과 수준을 객관적으로 반영한 것이었다. 이는 중앙일간지 중에 유일하게 심포지엄에 직접 참석한 문화일보 기자의 보도에서도 확인된다. 그가 쓴 기사의 제목은 「국사교과서 민족사관 중심 개편 - 일제잔재 청산·독립운동사 대폭 보강」이었다.<sup>1)</sup> 그러나 문제는 전혀 엉뚱한 곳

1) 새로운 준거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 일제가 자행한 민족말살 정책, 일본

에서 발생했다. 조선일보가 특유의 '마녀사냥' 전술을 동원해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것이다. 1994년 3월 20자 조선일보 기사는 이렇게 시작된다.

"해방 직후 4·3 제주도 봉기, 여순반군투쟁, 영남봉기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투쟁 속에서 민중은 현명한 지혜를 발동하여 도시대중시위, 농촌봉기, 산악유격전, 파업농성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86년 8월 18일자 서울대 자민투의 기관지 <해방선언>에 실린 기사 내용이다. 그 비슷한 시기에 서울대 곳곳에서는 여순반란과 4·3사건을 '반제반봉건민중항쟁', 6·25한국전쟁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하는 대자보가 나붙었다.

조선일보의 '눈부신 활약' (?)을 필두로 한 수구언론의 여론조성 속에서 준거안은 먹살잡이를 당하기 시작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준거안 전체의 맥락을 읽기보다는 '항쟁'이나 '사건'이라는 등 용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동시에 「주사파 등 80년대부터 새 작업」, 「북한 선전자료 복사판 우려」 등의 기사를 통한 전형적인 '색깔논쟁'을 유발해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다. 세계일보 등 일부 언론이 "역사에서의 '고정관념'과 '이념편향'을 모두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학자가 만든 시안을 매카시즘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우려를 표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연구위원 중 한 명이었던 정재정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는 1998년 발간한 저서 <한국의 논리 - 전환기의 역사교육과 일본인식>에서 "인신공격성의 비난과 사상공세적인 위협이 난무하였다. 학문과 교육을 논한다는 자세가 크게 흐트러졌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교과서 문제에 정치와 여론의 입김이 너무 직설적으로 파고들었다. 이 점은 앞으로 역사교육의 독자성과 중립성을 확보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멍에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마녀사냥'에도 논리가 있다고 한다. 그 중의 하나가 '빛과 어둠의 논리'이다. 그것

어 사용 강제, 신사참배 강요, 일본식 성명로의 개조, 황국신민화 정책 등을 설명하되, 이 과정에서 노골적인 친일세력이 형성되었음을 설명한다. ● 일부 민족지도자들이 일제 말 일제의 황국신민화 운동과 침략전쟁에 협력하였음을 간략히 기술한다. ● 광복후 친일파 청산, 토지개혁, 통일국가 건설이 민족의 과제였음을 이해하게 한다. 이 부분이야말로 아마도 준거안 중에서 조선일보가 가장 두려워했던 내용이 아니었을까.

은 우리가 흔히 쓰는 '흑백논리'라는 말과 상통하는데, 조선일보가 펼쳤던 색깔논쟁에서 다음과 같은 대목이 연상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악은 선의 존립을 위해서 그리고 악한 영혼은 마땅히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이러한 논리와 정당화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은 선을 위해서 이단이나 마녀라는 악을 학살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을 가지지 않았다. ...선악에 대한 기준이나 잣대도 없이 또는 터무니없는 잣대로 선악을 재단했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내용이 주로 자신을 위한 일로 채워져 있다. 그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옹호하는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들을 비판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무리는 이단으로 처형해 버리면서 자기들의 선악 논리를 정당화시켜 나갔던 것이다.(오성근, <마녀사냥의 역사>, 108~109p)

## 5. 에필로그 : 냉전에서 화해로 가는 길목의 3가지 삽화

(1) 손으로 꼽을 정도로 그 수가 적긴 하지만, 기자들 중에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취재한 사람도 있다. 민주일보 기자 홍한표와 합동통신 기자 설국환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들의 글에는 기존의 일간지가 잘못 보도한 사실들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계엄령이 내려진 극한적 상황에서 씌어진 글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려 한 점이 돋보인다. 물론 이 글들은 여순사건이 마무리된 시점인 1948년 11, 12월 사이에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좀더 차분해질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설국환은 취재를 하면서 비판적 시각을 잃지 않는다. 예컨대 순천에서도 망 나온 경찰관이 둘러대는 엉터리 증언을 간파한 뒤 현지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달했다.

"사실 순천여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반군과 반도가 방화와 강도질을 자행하였고 강간과 시체파괴를 여지없이 하였을 뿐더러 살해에 있어서 경찰관의 전가죽을 물살하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나 현지의 사체에

서 부녀자 노인의 시체는 거진 볼 수 없었을 뿐더러 시체에 손을 댄 흔적도 별로 보지 못하였다. 다만 수인의 경찰책임자와 국군장병의 가족을 살해하였다는 이야기를 당사자의 구전으로 들었을 뿐이며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지금 적발에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는 다소의 에누리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설국환, 「반란지구답사기」, <신천지> 1948년 11.12월호 합병호)

반군의 만행을 일방적으로 강조하였던 당시의 신문기사와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냉철했던 설국환도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모양이다. 냉전시대로 들어서면서 반공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 것이다. 그는 사건 당시 썼던 내용을 수정·보완한 글을 1965년 발표했다. 그런데 이 글에 「공산반도의 만행」이라는 부제가 붙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건 당시 비교적 객관성을 갖춘 기사로 평가받았던 글이 반공적인 성격의 글로 둔갑해 버리고 말았다. 1960년대의 냉전적 사회분위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금단의 성역에 간혀 있던 여순사건이 대명천지에 얼굴을 내밀었다. 198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여순사건 당시를 회고하거나 증언한 자료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대체로 좌익계 빨치산 인사들의 자전적 증언, 진압을 주도했던 군경 수뇌부의 회고록, 지역민들의 체험이나 목격담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좌익계와 현지 주민들의 증언이나 목격담이 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민주화운동의 성장과 관련이 깊을 것이다. 1987년 6월 항쟁을 승리로 이끈 시민들의 자신감이 출판계에 영향을 줌으로써 그 동안 금기시 되었던 빨치산 관련 책들이 그야말로 봇물처럼 터져 나올 수 있었다.(홍영기, 앞의 글, 167p)

빨치산 수기물 등에 대한 언론과 출판의 뜨거운 반응은 대단했던 모양이다. 여순사건을 소재로 삼은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의 다음과 같은 토로에서 우리는 당시의 분위기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어렵게 취재를 해가며 제1부 세 권을 단행본으로 내놓았다. 그리

고 해가 바뀌어 6월 항쟁이 일어났고 뒤따라 '6·29항복'이 있었다. 세상이 조금 달라지면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다시 한 해가 바뀌면서 그 물결을 타고 빨치산 수기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중 잡지들도 서로 다투어 옛 빨치산들을 찾아내 기사를 써 내느라고 정신없이 번잡을 피웠다. 약삭빠른 상업주의의 본색이었다.”(조정래, 「<태백산맥> 창작보고서」, <작가세계> 95년 가을호, 109p)

(3)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 '온풍'은 '냉풍'으로 급변하였다. 1994년 북핵 사찰 문제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덩달아 여순사건을 다룬 대하소설 <태백산맥>이 수난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해 4월 11일 8개의 극우단체가 작가 조정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때맞춰 <월간조선>도 5월호에 「소설 <태백산맥> 조정래의 현대사 왜곡」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색깔공세에 합세했다.

이러한 변화는 53년 전에 일어났던 여순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시대와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것은 동시에 여순사건 왜곡보도를 극복해야 할 과업이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발제 3

미 제6사단 G-2, 3 보고서 중 여순사건에 관한 내용

김 동 춘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 NGO학과 교수)

## 미 제6사단 G-2, 3 보고서 중 여순사건에 관한 내용

김 동 춘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 NGO학과 교수)

번역 : 최 윤 정

(민간인학살범국민위원회 연구원)

### CHRONOLOGICAL JOURNAL OF EVENTS

1948. 10. 18 - ?

p.1

한국 해군 함선 “통영” 302호 사령관 공충식이 관련된 여수 반란에 관한 보고.

1948년 10월 18일 저녁, 한국 해군 함선 세 척이 여수 남쪽항에 정박하였다. “통영” 302호, 공주 516호는 부두에 밧줄로 매어졌음. 두만강 305호는 항구에 닿을 내렸음. - 사령관 Achurch가 해안경비대 고문관에게 제출.

p.2

1948년 10월 19일 약 02시 경, 여수의 도로에서 폭동이 발생하고 총이 발사되었음. 함선 302호와 516호는 즉시 밧줄을 풀어 항구 밖으로 나아갔음. 부두를 떠

날 때 해안으로부터 기관총 사격을 받았다. 밤이 되자, 총의 유형 확인이 불가능했음. 함선 305호도 또한 해안으로부터 사격을 받았음.

함선 302호와 516호는 항구에 정박해서 서울의 해군 사령부에 전선 메시지를 보내는 305호에 접선. 516호와 305호는 여수 부근에 머무르라는 명령을 받음. 302호는 여수에서 제주도로 군대를 보내는 상륙정으로부터 국방경비대 Colonel Ott를 태우고 부산으로 향함. 516호와 305호는 여수항 입구로부터 3마일 이내에 머물러 있음.

속보 제119호

1948년 10월 20일 21시 채박선 중위는 제3여단 사령부에 도착해서, 저녁 식사 후 여수에서 제주도로 출발 예정이었던 대대 사열에서 1948년 10월 19일 19시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보고했다.

24군단으로부터 10월 20일 12시 30분에 접수

10월 19일 19시에, 정체 불명의 부대가 바다에서 전라남도 여수를 침입하여 경찰, 경비대, 철도 경찰 사령부를 점령했다. 그들은 우선 그 지역의 폭도를 무장 시킨 후, 그들을 도왔다. 이 작전은 1948년 10월 20일 04시에 완료되었다.

침투 부대는 여전히 상위 지위에 있다. 침투력, 발생 사상자 등은 알 수 없다. (C-3)

1948년 10월 19일 약 23시경, 제주도로 떠날 계획이었던 국방경비대 14연대 제1대대 40명이 폭동을 일으켜 경찰서에 불을 지르고 창고를 강탈했다. 특별 열차를 명령하여 1948년 10월 20일 09시에 순천에 도착. 경찰서 점령.

1948년 10월 19일 24시 경, 병력은 약 1000명이었다. 1948년 10월 20일 06시 경 병력은 약 2000명이 되었다. 배에서 근무하는 300명을 제외한 14연대 모두가 반란에 참여했다. 이 300명은 연대장의 지휘아래 있다. 주요 반란 부대는 연대 사령부 뒤편 산악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부는 1948년 10월 20일 10시 30분에 순천으로 이동하고 있다.

p.3

손실

여수

경찰서 방화  
경찰 초소 방화  
우체국 점령

순천

폭도들에 의한 경찰서 점령  
경찰 70명 실종

p.4

10월 23일 08시 45분 24군단 originator , PMAG, Capt. Reed로부터 접수

S-2, 광주의 제5여단은 1948년 10월 20일 08시 22분 14연대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1948년 10월 19일 21시에서 20일 02시 사이에, 제주도로 떠나려던 대대 사병 40명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들은 병기 창고를 점령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여수 민간인에서 또한 반란을 일으키게 하였다.

민간인과 군, 두 부대는 여수 경찰과 철도 경찰에 대항하는 행동에서 결합하였다. 폭도들의 병력은 증가하고 있으나 사상자는 알 수 없다. 여수와 광주 간의 연락이 두절되었다. 광주는 현재 조용하다.

1948년 10월 20일 09시 15분 송정리에서 온 메시지

광주 경찰의 보고서에 따르면, 1948년 10월 20일 24시에서 02시 사이에, 국방

경비대 약 40명이 여수의 국방경비대 14연대로부터 약간의 무기와 탄약을 확보하였다고 한다. 이 그룹은 여수 경찰서와 외부의 경찰 초소를 공격하였다. 폭도들은 여수 경찰과 접촉을 1948년 10월 20일 02시 30분 경에 중지하였다. 1948년 10월 20일 07시에 Camp Sykes의 경비대 4연대의 1개 중대가 두 명의 미국 고문관과 함께 자동차로 급파되었다. 광주 경찰과 여수 국방경비대 반란군과의 접촉은 유지되었다. 보고서는 이미 서울 PMAG 사령부에 제출되었다. (1948년 10월 20일 10시 45분에 접수)

순천의 RR Station에서 온 메시지, 14연대의 300에서 400명의 부대가 20일 09시 30분에 순천에 기차로 5개 여객칸을 이용하여 도착하였으며 순천의 철도역사를 공격하였다.

1948년 10월 20일 10시 30분, 공산분자가 여수시 전체를 점령하였다. C. O연대와 E. Off, S-3, C/S 제5 여단, Prevost Marshal은 여수 모처에서 작전중이다.

채 중위가 탄약과 군수품 및 29명과 함께 부산으로 왔다. C. O 제3 여단으로부터 온 메시지 (24군단 G-2으로부터 수신)

광주 방첩대의 10월 20일 11시 25분 보고. 국방경비대 14연대 병사 40명이 창고를 점령하고 주요도로의 경찰초소를 공격했다. 숫자 미상의 철도역사 경찰이 붙잡혔다. 기차로 순천으로 떠난 500명과 14연대 소속의 800명의 경비대는 순천의 경찰 초소를 공격했다.

p.5

1948년 10월 20일 12시 순천과 이리 사이의 통신선이 끊겼다. (B-3)

1948년 10월 20일 12시 24군단 G-2 (급송 86호)로부터 접수

20일 12시 500th RGD 수송과 Truden 중령이 받은 전화통화. Truden 중령은 철도 배차원원의 전화로 순천에서 온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평시의 전화교환대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배차원은 이 상황에 대해서 논하기를 꺼려했다. 아마도 국방경비대가 그의 사무실에서 대화를 듣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정보를 수반한다. (A-1)

여러 명의 사람들이 여수에서 죽었다. 09시에 순천으로 떠나는 보통 여객차인 652호가 멈춰 세워졌고 동순천에서 버려졌는데, 이곳은 순천에서 북쪽으로 한 정거장 또는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PMAG Lally 소령은 대전에서 접촉이 되었고 PMAG는 순천에 한 명도 없다고 말하였다. 그의 병사들은 광주에 있다. 그들은 몇 명을 순천으로 보낼 것이다.

순천에서 남쪽으로 2km 떨어진 곳에서 총격전이 있었으나, 순천의 철도역사는 무사하다.

1948년 10월 20일 14시 30분 부산 방첩대의 Kilpatrick은 부산의 Uncle George A K E Sugarek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14시 30분에 Sugarek은 여수 해안의 보트로부터 무전으로 보고를 받았다. 1948년 10월 20일 13시 30분에 여수 시가지에서 총성이 들렸다.

제5여단 발신. 1948년 10월 20일 14시 4연대 소속 사병 약 40명과 민간인, 청년들이 영등포의 작은 경찰서를 공격했다.

1948년 10월 20일 16시 40분 대전 발신, 10월 20일 14시 경 목포 철도 경찰서장의 정보에 따르면, 영등포 지서가 반란군 40명과 폭도 20명에게 공격을 받았다. 교전은 계속되고 있다.

1948년 10월 20일 14시 30분 부산 방첩대 발신. 여수 해안의 보트로부터 무전으로 받은 급송 보고 93호. 1948년 10월 20일 13시 30분 여수 시가지에서 총성이



들린다.

1948년 10월 20일 14시 45분 부산 PMAG 발신. 14시 15분 5여단 사령관의 보고 - 급송 보고 94호. 1948년 10월 20일 약 09시 20분, 반란군 600명이 여수로부터 특급 열차를 타고 순천에 도착하여 경찰과 시가지 교전을 개시했다. 5여단이 보낸 2개 대대는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있다. 14연대의 모든 장교가 살해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p.6

971방첩대 발신 급송 보고 96호는 여수 경찰서가 불탔다고 보고했다. 여수 지역의 경찰초소들은 파괴되었다. 숫자 미상의 경찰이 현재 경비대의 포로임. 여수와 순천 사이의 철도는 경비대 손안에 있음. 경비대는 현재 순천 경찰서에서 30m떨어진 지점에 있음. 격렬한 교전이 진행되고 있음. 경비대의 숫자는 현재 약 2천명으로 추정됨. 순천경찰서장은 서울에 즉각적인 원조를 구하는 무전을 쳤다. 해안 경비대는 현재 반란군에 합류했다.

대전 PMAG 발신 급송보고 97호, 1948년 10월 20일 17시 05분 수신. 국방경비대 2개 대대는 남원 남쪽 15마일 지점에 있으며 구례를 통과하여 녹우산 지역으로 향했다. 충청남도 경찰과 경비대 모두 경계하고 있다.

급송 보고 99호. 1948년 10월 20일 18시 35분 수신. 순천 경찰서에서 온 메시지에 따르면 국방 경비대는 경찰과 협력하여 폭도들과 싸우고 있다고 한다. 교전은 경찰서 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광주 - 광주 경찰서에서 온 전화 메시지에 따르면, 여수 경찰서가 불에 타 무너졌으며 모든 경찰 초소가 파괴되었다. 게다가 여수 우체국은 폭도들에게 점령당했다. 주모자는 우체국 안에 있다. 사상자는 얼마 없다.

급송 #110, 1948년 10월 20일 20시 30분 - 다음의 보고는 20일 22시 40분 목포 철도 경찰로부터 받은 것이다. 10월 20일 19시 용산포 경찰 초소에서는 습격이 없었다. 사격은 순천에서 아직도 진행중이다. 압록(좌표 미상)과 구례 사이의 철도가 경찰에 의해 봉쇄되었다.

1948년 10월 20일 19시 1,000명으로 추정되는 병력의 한 부대가 남원 교외의 여수 - 남원 도로를 따라 북으로 이동중이다.

1948년 10월 20일 19시 광주 경찰 chief of 8th div. 보고 : 여수와 순천 경찰서를 점령한, 약 3천명으로 구성된 반란군들이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다. 적군의 주요부는 이동수단으로 철도와 미군 트럭을 이용하고 있다. 가능한 빨리 지원군을 보내라.

10월 20일 19시 10분 수신 급송 보고 100호 부산 경찰 7th dept 발신 부산 방첩대 수신 : 순천 - 순천의 경찰 8th dept는 순천 경찰서 앞 약 30m에서 경찰과 국군이 반란군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폭도들을 돕고 있는 해안경비부대는 목포 지역으로 진격했다. 경찰 8th dept는 폭도들에게 한 번 공격을 받아 많은 사상자를 냈으나, 현재는 모든 것이 진정되었다. YOAN 통신국이 폭도들에게 점령당했다. 모든 경찰 초소와 경찰서가 불에 탔다. 경찰 chief of 8th dept는 chief of 7th dept에게 부산에 미군 비행기의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폭도들의 총수는 약 2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전주 방첩대 발신 10월 20일 19시 35분 수신 급송보고 101호 : 1천명의 국방 경비대 반란군이 남원으로 향하고 있다. 군산의 12연대는 여전히 충성을 하고 있으며, 경계를 하고 있다. 전주의 3연대는 남원으로 지원병을 보냈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p.7

1948년 10월 20일 19시 40분 급송 보고 102호, 대전의 경비대 고문관 발신 :

1천명의 병력으로 추정되는 한 부대가 여수 - 남원간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중이다.

1948년 10월 20일 22시 45분, 24군단 당직 장교 수신 급송 보고 109호, 대전의 방첩대 요원이 PMAG Mowitz 소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1948년 10월 20일 19시 45분 경 3연대의 남원 대대가 전라북도 남원에 행동을 개시했다. 이리 대대는 지원하기 위해 남원으로 가는 중이다.

1948년 10월 20일 20시 수신 급송 보고 103호. 순천 경찰서는 완전히 폭도들에게 점령됐으며 경찰 70명은 실종되었다. 교전은 시내에서 계속되고 있다.

로버트 장군 발신 Capt. Symonds 수신 : 3 여단 고문관과 6 연대 고문관에게 경계 "연대를 제어를 잘 하고 경계하라. 현재 모든 장교들에게 부대를 배치시키고 다음 며칠 새 일어 날수 있는 어떠한 소요도 피하라. 학교에서 수업거부를 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숙지하라. 연대와 경찰에게 지역 비상 계획하에 협동하도록 준비시켜라. 무기와 군수품을 보호하라. 이상"

급송 보고 105호 : 대전 철도 담당의 Lally 소령 발신, 1948년 10월 20일 20시 50분 : Lally 수령은 순천 철도 지역 감독 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김은 10월 20일 20시 10분 순천은 모든 것이 평온하다고 말했다. 김은 랠리 소령에게 순천으로 열차를 보내지 말라고 말했다. 랠리 소령은 대전에서 순천으로 가는 열차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김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한다. 순천 철도 지역 감독 이름은 김이다.

1948년 10월 20일 20일 55분 수신 급송 보고 104호. 24군단 PMAG 발신 : 이리 - 10월 20일 19시 30분 수신 보고. 순천의 모든 철도 역사가 반란군들에게 점령당했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전은 계속되고 있다. 순천과 이리 경찰 간의 통신이 두절되었다. 이리의 국군 제 3여단은 막사 안에서 경계를 하고 있다. 여단은

자체 사령관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모든 것이 평온하다.

광주 경찰 8th div 발신 : 광주 - 순천 경찰서가 완전히 반란군에게 점령당했으며 경찰 70명의 상태를 알 수 없다. 국군의 한 부대가 반란군과 교전중이다. 4연대 소속 지원부대는 순천 우체국 경비를 서고 있으나, 적국 병력이 아군보다 뛰어나서 적군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1948년 10월 20일 21시 PMAG 발신 24군단 당직 장교 수신 메시지 :

전주 3연대에서 막 도착한 메시지 : 적군은 남원 남쪽 약 8km지점에 있다. 2여단은 남원 - 피홍리 경계에 배치되었다. 본인은 1개 대대와 트럭에 탄약을 보내어 끝날 때까지 적과 싸울 것이다. 탄약 요청. M-1 2만발 소지.

1948년 10월 20일 20시 20분 Capt. Symonds 수신 메시지. 고문관은 다시 전투 지역을 떠날 것을 명령받았다. 부상을 입은 고문관은 그러한 것이 불복종의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 로버츠

p.8

1948년 10월 20일 21시 10분 수신 급송 보고 106호. PMAG 발신 : 다음의 보고는 광주 경찰 8th Div로부터 받은 것이다: 3연대 2대대로 추정되는 국군이 반란군에 대한 작전을 개시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복종을 거부했다. 15명만이 명령에 따랐다. 아군보다 더 많은 적군은 경찰일 것으로 여겨진다.

1948년 10월 20일 21시 4분 수신 급송 보고 107호. PMAG 발신 : 여수 부두에서 경찰에 의한 사상자의 출처는 경찰 8th div. 해안 경비대 배는 안전. 배 한 척이 5여단 행정 장교와 50명을 태우고 부산으로 떠났다. 배는 사격을 당해 정박할 수 없었다. 많은 시민이 행렬에서 붉은 깃발을 들고 있다.

1948년 10월 20일 22시 15분 수신 : 대전의 2여단이 경계를 하고 있으며 출동하기를 바라고 있다. 4연대는 준비 완료. 고문관은 모든 지휘관과 경찰들 회의를 열어, 우리 모두는 협조하는데 동의했다. 1948년 10월 20일 20시 탄약을 실은 차가 길에 있음. 국방부 장관은 10월 20일 저녁 일찍 명령을 내렸다. 장교 몇 명을 태운 광주에서 온 비행기가 김포에 도착했다. 대구의 6연대와 3여단이 경계를 했다. 경찰 정보에 따르면 1948년 10월 20일 19시 30분 순천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 4연대의 부대들과 경찰은 여전히 순천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의 보고는 1948년 10월 20일 22시 40분 국군 G-2로부터 받은 것이다 : 반란군 지휘관이 14연대 인사부에서 근무하였던 선임하사관이라고 한다. 반란군 행렬이 행진하면서 '붉은 깃발가'를 부르고 있다.

다음의 보고는 1948년 10월 20일 22시 40분에 해안경비대 함정 ASK 516호로부터 받은 것이다 :

이 함정은 여수항 밖에 정박할 것이다. 이 함정은 항구로 들어가려고 수차례 시도했었으나, 폭도들의 심한 사격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붉은 깃발을 들고 시가지를 행진하였다.

p.9

1948년 10월 23일 제 1보병 발신 : 1948년 10월 21일 01시 양북 경찰지서 소속 경찰은 카빈과 일본식 총으로 무장한 10명과 총격전을 벌였다. 교전의 결과 우익 1명이 사망하였다. 무장대의 모든 인원은 탈출한 남로당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사상자가 없다.

대구 지방 경찰 "E" 사령부는 순천 경찰서 소속 경찰 70명이 사망하였거나 실종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사망한 경찰 중에는 순천경찰서장이 있었는데, 그는 또한 폭동을 일으킨 국방경비대와 여수와 순천 지역의 경찰 간의 최근 교전의 희생자

이다.

1948년 10월 21일 02시 20분 보고 112호 : Capt Alexander는 이리 철도역사 감독으로부터 우리 병사인 국방경비대를 태운 열차가 10월 21일 01시 50분 남원을 향해 이리를 떠났다는 철도 전화를 받았다.

1948년 10월 21일 05시 50분 전주 경찰 발신 급송 보고 113호 : 순천에 위치한 금강호텔이 인민 재판소로 지정되었다. 폭도들의 포로가 된 경찰관들은 재판을 받고 법정에서 처형되었다. 숫자 미상의 경찰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다. 전해진 바에 의하면 비슷한 법정이 여수에서도 열렸다.

급송보고 114호 - 1948년 10월 21일 05시 50분 철도 경찰 발신 : 민을 만한 출처로부터 나온 정보에 따르면 경비대 반란군이 순천에서 열차를 집결시켜 광주를 향해 출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벌교 경찰서는 적군의 공격에 맞서기 위하여 보성 경찰서와 군대를 합류시켰다. 경찰들은 현재 반란군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급송 121호 - PMAG 발신 - Mowitz 소령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 1948년 10월 21일 05시 30분, 반도 분자들이 순천에서 철수하였다. 10월 21일 06시 30분 반란군들은 다시 북쪽으로 출발하였다. 10월 21일 11시 30분, 1개 대대 병력의 남원 소속 전위는 구례에서 반란군과 마주쳤다. 진행중인 교전은 없다. (PMAG는 상황이 종료되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현재 남원에 2개 대대가 있으며 남쪽으로 가고 있다고 추정된다. 군산에서 오던 2개 대대는 10월 21일 12시에 군산을 통과 완료하였다.

급송 116호. Capt Alexander, 1948년 10월 21일 06시 50분, Ascom - 광주 간 화물차 2대와 승무원차 1대는 다음과 같이 움직인다.

대전 도착 - 01시 37분

대전 출발 - 02시 31분

이리 도착 - 05시 30분

이리 출발 - 06시 15분

이 차들은 광주에 09시경에 도착할 것이다. 국방경비대는 로버트 장군의 바램과는 달리 대전에서 적재품의 반을 내릴 것이다. 이리 - 남원간 열차는 500명의 국방경비대를 태우고 이동한다. 화물차 10대로 구성된 열차는 03시 출발하였다. 군대는 06시 30분에 아직 탑승하지 않았다. 서울에서 05시 51분에 떠난 용산 - 순천간 열차는 05시 58분에 용산을 떠났다. 화물차 한 대, 수하물 차 한 대, 3등 객차 2대로 구성된 열차의 일부는 전주로 간다. 3등 객차 1대, 2등 객차 2대, 침대차 1대로 구성된 열차의 일부는 광주로 간다.

21일 04시 30분 로버츠 장군은 2여단에게 군산에서 광주로 가라고 명령했다. 철도는 충분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이동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첫 번째 열차는 1948년 10월 21일 06시 30분 이동할 준비를 완료했다.

p.10

1948년 10월 21일 21시 20분 971 방첩대 발신 급송 136호 : 경찰은 21일 16시 55분 광주의 국군 헌병이 공산분자의 순천 발신 광주 수신 1급 비밀 통신을 가로챘다고 보고했다. 계획은 다음과 같다 : 국방경비대 14연대가 반란을 일으켜 남원, 전주, 이리를 엄습한다. 경비대 4연대는 반란을 일으켜 목포, 광주를 엄습하고 이리에서 14연대와 만난다. 경찰은 14연대가 현재 약 70명의 반란군으로 구례 지역에 있다고 보고한다. 구례 남쪽의 14연대는 약 400명의 반란군이며, 게다가 여수 남쪽에 5대 안쪽의 배가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급송 118호. 24군단 G-2 발신 : 이것은 31 보병사단 제 3대대로부터 받은 것이다 : 반란군들은 구례 부근에서 남쪽으로 철수. 자발적인 철수 (대전 방첩대)

31 보병사단 제 3대대는 대전의 PMAG Mowitz 소령으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받았다. Mowitz 소령은 그 정보를 1948년 10월 21일 07시 30분 국군의 원 대령으로부터 받았다. 2개 아군 대대가 군산에서 광주로 가고 있다.

1948년 10월 21일 11시, 정찰 중인 L-5 조종사가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 광양 - 시내 건물 위에 북한기가 날림. 2.5톤 트럭 7대 목격.

Fowser 대위 발신 : 10월 21일 11시 40분 : 11시에서 11시 30분 사이 광양 시내 위에 북한기가 날림. 국방경비대를 태운 2.5톤 트럭 7대 목격

p.11

북으로 광양을 출발한 국방경비대를 태운 차 3개를 이은 기관차 한 대 목격. 국방경비대에 배치된 기관총은 석탄차에 있음.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 없음.

여수항의 해안 경비대 함정 두 척에서 남한기가 날림. 군대나 차량은 시내에서 보이지 않음. 북한기가 시내에서 나무짐.

1948년 10월 21일 13시 30분 보고. 12시에 북한기가 교룡리에서 나무짐. 흰색 한복 차림의 대규모 무리가 비무장으로 시내쪽으로 행진함.

1948년 10월 21일 12시 Fowser 대위 발신 : 교룡리 상공을 비행하는 하우스만이 탄 L-5가 순천으로 향하는 25에서 30명의 병사를 태운 2.5톤 한 대와 북한기가 날리는 것을 목격.

남서쪽에서 순천으로 약 38-40명의 군대가 행진함. 그는 그들이 아군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음.

광양의 건물 위에 북한기가 나무짐. 시내에서 차량 7대 발견. 북한을 향해 출발한 기관차 목격. 경비대와 기관차를 실었으며 석탄차에 배치됨. 적군으로 의심됨. 거리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음.

여수에는 군대가 보이지 않음.

군산에서 나오는 2개 대대는 1948년 10월 21일 12시 통과완료.

급송 127호. PMAG 발신. 1948년 10월 21일 16시 30분 - 다음의 보고는 13시 35분 해안경비대 "공주" 선장으로 받은 것임. 정보에 따르면 폭동은 인민군이 남한 전체를 점령했으며 공산단원 1000명이 여기서 폭도들을 도울 것이라고 선전했다. 여수 시내는 공산주의 색으로 변할 것이다.

2000명의 폭도들이 구례 경찰서를 공격했다.

광양 점령.

p.12

전투 지역에 미국인은 가지 말 것 - 방첩대

급송 137호 - 21일 21시 20분 971 방첩대 발신 - PMAG 발신, 대전 방첩대 수신 :

여수에서 탈출한 한국군 장교 두 명 심문에 대한 보고서. 제5여단 참모장 선광도 중위는 1948년 10월 20일 02시에서 03시 사이 여수에서 발생한 폭동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대령은 제주도로 향하는 상륙정에 부대를 승선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는 막사 근처에서 총성이 들렸을 때 2개 중대를 승선시켰다. 대령은 조사하러 가서 막사가 소동에 빠졌음을 알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무기와 도움을 청하러 연대 사령부에 갔다. 그는 헌병, 병사 및 해군의 작은 부대를 얻었다. 그는 또한 약간의 무기를 얻었으나 탄약을 얻지 못했다. 그의 작은 부대는 철수를 강요당했다. 그의 부대는 약 38명으로 추정되었다. 그들은 또한 다른 2개의 다른 방향에서 막사에 접근을 시도했었다. 그들은 현재 '광주'라는 이름의 상륙정에 포로가 된 폭도 약 35명에게 붙잡혔다. 장교 한 명과 사병 20명은 아마도 부산 형무소로 보내졌을 것이다. 그들은 폭도들이었다 포로 중 한 명은 통역가였는데 주모자로 추정되며 폭동이 장교와 하사관들이 사람들에게 경찰이 폭동을

일으켰으며 말했으며 경찰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고 보고했다. 14연대의 다른 장교와 사병은 체포되었다. 그들은 또한 현재 해군 함정이 여수항에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또한 여수항 변두리에 큰산이 있는데 방어를 위한 시멘트 요새가 세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급송 135호, G-2 사령부 24군단, 21일 20시 55분, 방첩대 Capt. Steele는 17시에 광주를 출발하여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

1. 두 명의 미군 대위, Greebaum과 Mohr는 4연대 1개 중대를 수반하고 어제 순천으로 갔다. 그 후 순천에 있었던 한국군 대위는 미군 대위 두 명이 시내에서 제멋대로 행동하였다고 보고했다. 중대 대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보고가 없다.
2. 어제 오후 순천으로 갔던 또 다른 중대는 어제 밤 광주로 돌아왔다. 사상자는 없었다.
3. 3연대 1개 대대는 순천 북쪽 6 마일 지점 길을 건너고 있다.
4. 경찰은 폭도들이 별량면, 벌교, 조성, 낙안의 4개 경찰 초소를 점령했다고 보고했다.
5. 급송 124호에 광양 북쪽으로 전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던, 차 3대 분의 병사를 실은 열차는 실제로 21시 12시 05분에 실제로 순천 북쪽으로 가고 있었다.

p.13

6. 폭도들이 보성 경찰서를 습격하러 트럭을 타고 가는 도중에 폭도 25명이 충성스러운 국방경비대 3명에게 체포되었다. 포로들은 10월 19일 밤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대열에서 떠나 무기를 가져가고 있었다. 그들은 무기를 제주도로 가져가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포로들 중 한 사람은 그들은 아무도 죽이지 않았으며, 여러 마을을 지날 때 북한 정부를 선전하면서 단지 소총을 허공에 쏘을 뿐이라고 말했다.

10월 21일 16시 20분 순천 상공의 비행기가 순천을 떠나 북으로 가고 있는

경비대 열차 3대를 목격했는데 오늘 아침 일찍 탑승한 열차와 같은 것으로 보였다. 기관총이 석탄차에 배치되었다.

7사단 공군 장교는 2개 중대와 1천명의 민간인의 반란군 병력이 여수에 있다고 보고했다. 여수는 반란군 손에 있다. 반란군은 14연대의 무기와 탄약을 가지고 있다.

급송 134호 - PMAG 발신 - 21일 20시 40분 - 10월 21일 20시 10분 수신. 국방경비대 목포 기지 파견. "광주정"과 "대동강정" 함선이 14연대 반란군에 합류했다고 보고되었다. 목포 기지로부터 인천까지 38선을 경비하는 것이 급히 필요하다.

p.14

여수의 국방경비대로부터 받은 24군단 G-2의 다음과 같은 정보는 서울의 해안 경비대 사령부에 보내는 무선 메시지이다. 메시지는 21일 18시 20분에 보내졌다. 적군은 배에 무기와 탄약을 싣고 1948년 10월 21일 아침 제주도로 떠났다. 여수지역 해안경비대는 배와 인력을 무장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있는 9연대로부터 박격포 4정과 기관총 1정을 받았다. 배 3척은 여수와 제주도 사이를 순찰할 것이다. 논평 : 9연대로 보낸 메시지는 고문관에게 제주도에 배가 정박하는 것을 경계하도록 하였다. 해안경비대의 정보는 22일 18시까지 해안경비대 함정 8척이 순찰할 것이라고 하였다. 여수 해안경비대는 현재 9연대 소속이다.

1948년 10월 22일 13시 항공 정찰의 결과로 Thorpe 대위가 보고

여수 : 여수에서 09시 55분, 2.5톤 트럭 한 대가 Camp Anderson으로 가는 길에 주차를 하였는데 아마도 엔진 고장인 것 같다. (국방경비대원 두 명이 보닛을 올리고 엔진을 고치고 있었다) Camp Anderson의 지프 한 대가 한가했다. 캠프 지역은 황폐하다. 여수 해안 가까이에 한국인 약 200명이 모였다. 북한기가 2층

건물에 나부꼈다. 사람들은 5에서 10명씩 시 전체에 흩어졌다. 10에서 12명 정도의 2개 그룹이 1열로 도로를 따라 행진하는 것이 목격됐다. 경비대 보초가 부두에 배치되었다. 한 건물에서 붉은 기가 나부끼며 깃대에 영겼으나, 하얀 작은 점이 눈에 띄었으나, 같은 지역에서 확실히 같은 것으로 두 번째 깃발이 보였다.

p.15

순천 : 10시 20분 경비대 한 병사가 그의 소총에 작은 북한기가 꽂은 채 창고의 보초에게 다가가는 것이 목격됐다. 시 전역에 많은 북한기가 눈에 띄었다. 깃발은 시내의 학교 두 곳에서 나부끼고 있었다. 녹색 바탕에 파란 줄무늬인 것을 제외하고는, 가로 6피트 세로 3피트 사이즈의 한 깃발은 북한 깃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행기가 이 그룹 위로 날아갈 때, 그들은 함께 가까이 몰렸다. 경비대원 5명으로 구성된 각기 다른 두 그룹이 도로를 따라 1열로 행진하는 것이 각각 발견되었다. 철도역사에서 2개 중대에 달하는 약 400명의 경비대원이 있었다. 약 200명에 달하는 한 그룹은 역사 뒤편에 4개 소대 형태로 있었다. 약 200명에 달하는 또 다른 그룹은 역사 바로 앞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었다. 모든 군대는 무장되어 있었다. 아군인지 알 수 없다. 8량 여객차가 역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북을 향하는, 양쪽 끝에 4개의 객차를 이은, 2개 엔진이 열차 중앙에 있었다. 개인 집 마당에 한국인 시체, 여자 2과 남자 5, 7구가 발견되었다. 모두 민간인 차림이다. 시체는 부풀어 있었다.

광양 : 10시 35분 북한 깃발이 학교 건물과 경찰 탑에 나부끼고 있다. 15~30명으로 구성된 그룹이 시내 전역으로 흩어졌다.

급송 142호 - PMAG 발신 - 로버츠 장군 : 10시 40분 해안 경비대 감시선 "봉주"는 여수 시내가 여전히 적군의 지배하에 있다고 보고했다. 감시선에서 온 정보는 58명의 적군과 소총 21정을 노획했다고 보고했다. 적군 1천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 한 충성스런 경비대원이 부상을 입었다. 4XYS가 여수에 오늘 오후 15시 진해로부터 도착할 것이다. 목포에서 감시선 두 척을 지원하기 위해

보낸 감시선 1척이 벌써 여수에 있다.

곡성 : 11시, 이 마을에서 2개 가옥이 불에 탔다. 한 채는 여전히 연기가 나고 있다. 철로 가까이에 있는 곡성 남쪽 3마일 지점의 작은 마을에서 약 150명의 민간인 무리가 강둑에 모였다.

1948년 10월 22일 11시 10분 Fowser 대위 발신. 11시 순천 상공 비행, 역에서 탑승하고 있는 8량 객차 목격. 수백명의 군대. 한국인 기상 정찰자가 그들은 반란군이라고 말했다.

남원 : 10월 22일 11시 10분, 경비대 한 소대가 그들의 수용소에서 가까운 도로에서 행진하는 것이 목격됐다. 또 다른 소대가 수용소 내에서 정렬을 하고 있다.

10월 22일 11시 10분 수신 - 7사단 G-2 급송 보고. Kern에 의한 보고 - 다음의 정보: 대전의 한국군 사령부. 아군은 순천에서 여수로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매우 작은 저항이 남아 있다. 충성자의 승리로 보인다.

구례 : 11시 14분 우리가 도착하였을 때 15대의 차량 1열이 시내 변두리에 닿았다. 이 행렬은 25-30명의 경비대원이 탄 9대의 2.5톤 트럭과 병사들로 가득 찬 3/4톤 트럭 4대, 그리고 남원에서 온 2.5톤 트럭 한 대로 구성되었다. 도로 교차점에서 1마일 떨어진 시내 북쪽에 파란색 제복을 입은 경찰 25명이 모였다. 북한기는 눈에 띄지 않았다. 경비대는 물론 경찰들은 시내 상공에 낮게 비행하는 항공기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p.16

속보 #147, 10월 22일 14시 10분 PMAG Cavanaugh 중위에 의해 보고 : 전화 조선해안경비대 본부로부터 음. 10월 22일 13시 여수내에 군대, 해군, 그리고 경

찰부대지역은 반도에 저항하여 공격 중. 50명의 반도들을 사로잡고 30개의 M-1을 노획. 적들의 피해 사망자와 부상자는 약 1,000명.

속보 #148 10월 22일 14시 15분 Frn Trans. Sect. --- Truden 중령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따르면 : 10월 22일 13시 25분 20대의 무개수송차량이 남쪽으로 이동 탄약을 실은 차량 2대, 가솔린을 실은 차량 1대, 10월 22일 4시 55분에 영등포를 떠난 호송병을 위한 2대의 차량.

조선경비대의 위치에 따르면 포저 중위에 의해 보고된 10월 22일 : 5여단 사령부는 주암에 있고 쌍암면으로 이날동안 이동중. 6연대 1대대는 하동에서 15시에 호송용 차량에 의해 순천을 향하여 이동중. 구례에서 경비대는 광주에서의 국방경비대보고에 의하면 호송용 차량으로 순천을 향하여 이동중. 10월 21일에 2해안경비대는 여수방파제 좀 들어간 곳에 수송함과 접촉. 남조선기가 휘날리고 있음. 순천, 여수, 구례에서 10월 21일 커다란 북조선기가 있었음. 10월 22일 15시에 순천에서 날리는 깃발은 없음. 많은 북조선기가 11시에 이 마을을 뒤덮었음. 국방경비대호위대는 함양으로부터 순천을 향해 이동중. 호위대는 비행기로. 그들은 15시에 순천으로부터 약 5마일지점에 있게 됨. 하동으로부터의 경비대는 이 도시에서 서쪽 0.5마일에 있고 15시에 차량 중대로 이동.

로버트 장군의 보고 : 광주는 국립경찰이외에는 보호할 수 없음. 6연대 1대대, 이들은 남원에서 10월 22일 선호 장군에 의해 명령을 받고 다시 오늘 광주로 진격. 우리는 이 대대가 순천에 도착했었던 오늘 15시에 보고를 받음. 보고서는 또한 광주로 오라는 명령을 받은 Rcn부대가 순천에 도착했음을 표시.

10월 22일 16시 30분 4연대 2대대 화순 남쪽 언덕지역에서 노획된 것은 : 5개의 카빈, 1LMG, 1BAR, 그리고 20개의 M-1과 약간의 탄약.

Int의 Vice Sec.으로 경찰 8관구장에 의해 보고 : 순천경찰서 앞에서 국방경비대 4연대 180명과 350명 경찰과 1,800 반란을 일으킨 경비대사이에 교전. 상황은 긴박함. 항공기 필요. 전라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찰의 요청(경찰보고서)

p.17

24군단 1948년 10월 22일 14시 55분에 받음 : 19대의 2.5톤 트럭과 2대의 지프 광양동부 3마일 지점에서 멈춤. 깃발없음. 7대의 2.5톤 트럭과 2대의 지프 같은 길 동쪽에. 깃발없음.

24군단 1948년 10월 22일 17시 3분에 받음 : 미국고문과 국방경비대간의 라디오 통신: 순천 0.5마일 북쪽지점에서, 아군과 순천외곽 북쪽에서 온 가벼운 저항 맞닥뜨림.

속보 #167 경찰이 보고한 PMAG에게로 온 메시지에 따르면 : 10월 23일 13시 30분에 7사단 경찰로부터 이것을 보고 : 10월 22일 17시에 15연대 1개 대대가 광양에서 반도들과 교전했음. 10월 22일 19시에 하동으로 같은 대대 철수. 경비대 피해 사망자 5, 부상자 50. 적들의 피해 알 수 없음. 연대지휘자 4~5장교, 15연대 20명의 하사관을 잃어버림. 적의 힘은 2,000쯤으로 평가, 하동으로부터 16킬로미터 지점에 있음. 지휘체계 알 수 없음. 하동 경찰과 경비대는 더 나은 작전을 계획 중(경찰보고서)

속보 #156 PMAG로부터 : 10월22일 21시 진해기지의 지휘관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름 : 1. 10월 22일 19시 30분에 진해로 보냄 : 200명의 반도들과 몇몇의 100여명 공산주의자들이 여수, 순천, 골약리 경찰서를 점령한 분자들이 하동으로 진격중. 2. 10월 22일 16시 12분 보냄: 10월 22일 14시에 4 해안경비대함선이 여수항을 향하여 진해를 떠남. 진해의 지휘자가 10월 22일 17시 55분 해안경비대함대로부터 받은 전갈에 따르면, "정보에 의하면 반도들은 그들의 군대를 재평성하고 또한 "자기방어경찰"을 또한 구성했다고 함. 그들은 자신들은 인민군이라 부름. 폭도들은 여수해안을 따라 또는 산으로 호위대를 배속했다고 함. 연락장교는 잔존하는 군대와 호위대 사이에 유지됨. 우리는 육지로 세번 시도했으나 반도들이 지른 화재가 물렸기 때문에 불가능함. 우리 현재 위치는 여수항 내. 우리는 거기서 순찰을 계속."

군대는 10월 22일 늦은 오후동안 보성에서 만들어짐. 그 마을은 10월 22일 21시에 적에 의해 점령.

PMAG 고문 시몬즈 중위로부터 10월 22일 받은 보고 : 광주 RR 경찰로부터, 10월 23일 9시 15분에 PMAG에 의해 받은 보고에 따르면 : 10월 22일 23시로서 상황은 다음과 같음 : 중요한 군 병력은 여수지역으로부터 철수하고 보성 가까이에 집결중. 경비대와 경찰부대 12대 트럭이 공격하기 위해 보성으로 이동중.

또 다른 보고서는 아군이 12대의 3/4톤 트럭으로 광주에서 보성으로 이동중이라고 설명.

10월 22일 PMAG고문인 시몬즈 대령으로부터 받음 : 제주도로 갔던 14연대 1대대 한국장교 채 sh 중위로부터의 보고 : 별 정보 없음. 이 장교는 여수로 배를 타고 귀환.

10월 22일 23시 50분에 3여단 중대가 5연대의 지휘아래 김종원 중위 328부대와 미국고문 대로우 중위, Myer 중위가 함께 보고함. 수송함을 경유하여 여수를 향해 출발.

p.18

광주경찰은 10월 23일 2시에 아군이 600포로를 순천에서 잡았다고 보고 : 8명의 아군이 죽고 잡혀 감. 보성 가까운 곳에서 적은 광주를 향하여 이동하고 점점 강해지고 있음. 진격할 최소단위 편대들이 명동리에 있는 한. (지도상 없음)(경찰보고서)

목포 RR경찰은 10월 23일 4시에 여수를 위협하는 중요한 반도세력이 보성 근처에서 집결중. 우리의 지원부대는 광주로 이동중. 12대의 3/4톤 트럭들이 이 움직임에 동원.



속보 #158 1948년 10월 23일 7시에 PMAG로부터, 600명의 포로들이 잡혔음. 아군은 5 사상. 보성지역에서 아군 조선경비대는 150 사상 ; 경찰 100 사망. 보성에서 적들은 우리 아군보다 우세하다고 보고. 적은 광주에서 명동리를 향하여 행군. 전주 RR 경찰보고서.

속보 #181 24군단으로부터 1948년 10월 24일 11시 50분 : 10월 24일 10시 20분에 500RGD Truden중령으로부터 받음 : 23일 5시 7분에 도착한 국방경비대의 탄약을 실은 차량이 일부분 적재치 않고 23일 16시 12분 광주를 향해 출발. 용산을 떠난 가솔린 차량은 대전의 국방경비대로 출발. 국방경비대는 용산에서 순천을 향해 RR차량으로 적재 수송. 수송차량 번호는 알 수 없음.

10월 23일 12시 김대위로부터 5연대 중대, 중대 특수부대 정 대령에게서 : 10월 23일 12시, 이날 아침 9시 40분에 착륙 시작. 식량과 탄약 요청.

탄약과 식량을 가진 배가 도착.

10월 23일 10시 10분에 여수에서 시몬즈 중위에 의해 관찰 : 1개 수송함이 해안에서 떨어져서 정박중. 1개 수송함은 도크에 정박 중. 군대가 도크에서 수송함 승선. 또 다른 군대 약 15명이 배를 향하여 달려감. 북조선기는 경찰서에 휘날림. 적에 의해 방어선은 경찰서에 그어질 듯 그들은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지붕에 위치함. 두 대의 트럭이 경찰서에 짐을 부림.

포저 중위로부터 : 10월 23일 10시 30분에 4 해안경비대선과 한 수송함이 남조선기를 휘날리며 여수항에 들어옴. 배는 해안가에서 작은 중화기를 받음.

1948년 10월 23일 17시 20분 그린우드 소령으로부터 받은 보고 : 미국 연락장교 비행사가 오늘 10시 30분에 순천에서 PMAG Treadwell 대위와 접선. Treadwell은 무어 중위와 그린바움에게 좋다고 보고. 그들은 내일 광주로 돌아갈 것을 명령받았음. 라디오 조작자는 SCR#193 나머지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완전한 장치를 요청함. 새로운 장치를 설치할 것을 제안. 여기엔 단 하나의 SCR#193.

M-209는 고장남. 교체를 요청하고 또한 SCR#193도 요청. 전략적인 상황에서 정보를 따르면 :

대구로부터 10월 23일 10시 30분에 받은 보고 : 70명의 경찰이 순천경찰서로부터 죽임을 당하거나 행방불명됨. 사망자 가운데 순천 경찰서장도 있음.

여수 : 10시 30분에 많은 사람들이 마을로부터 mts로 달아나고 있음을 알수 있음. 대략 800~1,000명으로 관찰됨. A-26으로 보이는 미국 국적표시의 두개의 엔진을 가진 비행기가 여수상공을 날아다니고 있었음.

p.19

여수 : 10월 23일 10시 38분 해안경비대함이 길 아래 있는 것이 관찰.

캠프 앤더슨 : 여수시에 가까운 : 캠프 앤더슨에서 4대의 2.5톤 트럭, 2대의 3/4톤 트럭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음.

순천 : 11시 5분에 대략 10각각의 종대로 있는 두 줄의 트럭 종대가 길가에 주차되어 있음. 몇몇의 부대는 마을을 통과하여 행진 중. 마을에서 2개 대대인 부대의 평가된 전력은 아군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

광양 : 10월 23일 11시 15분에 모든 것이 조용함. 눈에 띄는 활동 없음.

포저 중위로부터 10월 23일 11시 15분 받음. : 두 개의 엔진을 달고 있는 수륙양용기는 대략 B-25와 비슷한 사이즈로 여수상공을 5~6회 선회하고 있는 중.

아군이 순천을 점령한 11시 35분에 보고한 포저 중위로부터 10월 23일 11시 46분 받음. : 4 북조선깃발이 별교리에 보임 어떤 행동도 관찰되지 않음.

하동 : 10월 23일 11시 30분 경찰에 의해 다리 위에서 도로차단을 하고 있는 것이 관찰됨. 한국군에 위치한 약 1개 대대 병력. 그들은 학교 운동장에 있음. 수송수단은 14대의 2.5톤 트럭.

구례 : 11시 45분 상황은 보통 때와 같음. 어떤 발생사건도 없음.

남원 : 10월 23일 11시 55분. 대략 스무 명의 군인들, 한국군 아군들이 학교 운동장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한국군 특수부대 사령부와 접촉한 광주로의 진격은 그들이 가장 통신상 어려움을 가질 것이라던 Reed 대위와 Hausman 대위에 의해 정보를 받음.

리드와 하우스만 대위의 정보 : 보성에서의 적들의 상황. 보성 근처에서 적들이 규합되고 있는 흔적이 있음. 우리 부대는 공중으로 능동적인 정찰대를 보낼 것. 적들의 규모는 단정하지 어려움. 우리 부대가 가질 수 있는 최고사령부와의 통신은 비행기에 의한 것임.

10월 23일 12시에 급파한 천안에 3여단 고문으로부터 받음 : 상황은 엄밀히 보기에 믿을만함. 거의 정보가 아니라 지금까지. 적은 모르타르와 기관총을 다수 확보.

PMAG 로버트 장군에게 온 전갈 : 병사들의 배급량은 충분치 않음. 우리의 기관총은 고장. 민간인들은 지독하게 활동적임. 팜플렛을 떨어뜨릴 것을 권유. 더한 중장비 무기 필요. 지원병 및 성공적인 착륙 전에 아군과 지상 접촉 필요. - Capt. Darrow

PMAG 로버츠 장군 수신 메시지 : 순천은 우리 손안에 있음. 상륙정은 여수에서 저항에 부딪힘. 순천과 보성 간의 상황 혼란. 약 1500명의 반란군에게 점령된 것으로 알려짐. 우리 부대는 보성을 공격하고 있음. 즉각적인 남쪽의 상황 때문에, 이 배는 일시적으로 머물러있음. Fuller

p.20

10월 23일 15시 여수, "천안시"로부터, 3여단 고문관으로의 전갈 : 여수 북부에 착륙 시도 그러나 숫적으로 우세. 수송함 철수 여수만에서 해안경비대와 함께 수송함 정박중. 사망자는 부산으로. 적들은 20대의 수송 수단있음. 시민들은 반란군에 동조적. 적들은 고지대에.

이날 오후 15시에 다시 보성 상공에서 포저(Fowser)중위는 적들의 동태를 살핌. 세 개의 북조선기가 15시에 벌교리의 마을에서 펄럭이고 있음. 대략 200명쯤 되는 제일 큰 시민그룹은 벌교리 같은 마을 중심가에 모여있음.

15시 15분 또는 20분 경 해안경비대 선상과 수송함에서 이날 아침 관찰한바 Fowser 중위 : 군대이동에 대한 결정 유보. 여수거리는 적막함. 또한 이날 아침 보고받은 비행기를 확인. A-26. 브라운 대위는 비행기로 간주할 만하다고 함. 그들은 미국 국적표시. 일본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믿음

1948년 10월 23일 16시 여수 앤더슨 캠프 : 캠프 앤더슨에서 3대의 2.5톤, 1대의 3/4톤 트럭 관찰. 캠프 앤더슨 가까이에 사람 없음. 수송함은 해안가에 정박중. 한국 군인들은 이 만을 관찰 중.

1948년 10월 23일 19시 55분 받음 : 10월 23일 18시 15분 PMAG로부터 #174, : 정보에 따르면 진해기지 지휘관으로부터 10월 21일 16시 15분 받음 : 최근에 경비대가 공격중. 적들은 순천 북부 2킬로미터지점으로 철수. 적들은 보성지역에서 벌교리로 후퇴 이동하고 있었음.

10월 23일 18시 10분 군단 G-2로부터 받음 : Trans로부터 #169 속보. 10월 23일 18시 15분. 트루던 대령은 한국 RR 총지휘관 Mr. Chin에게 정보받고...

10월 23일 16시 40분 포저 중위로부터 받음 : 16시 20분 라디오의 대화, 정보에 따르면 순천에서 고문관과 : 광양은 아군에게 접수됨. 75명의 포로들을 광양

에서 사로잡음. 그린바움 중위와 무어 중위는 아군과 함께 okay

10월 23일 부산 CIC로부터 받음 2,000 경찰과 국방경비대가 순천 가까에서 전투 중

경찰은 광주와 화순으로부터 들어오는 여수그룹을 차단하기 위해 순천과 광주 사이의 도로를 차단. 경찰 경계태세. 경찰은 여수그룹의 철도수송을 막기 위해 순천에서 철도를 막고 지연 중. Sykes와 캠프 앤더슨간에 어떤 의사소통도 없음. "H"와 여수간에 어떤 구획도 없음.

p.21

목포 주변의 최고 경계로 항해를 멈춤. 부산 경찰서의 지시에 의하면 부산을 향해 부산에서 머무를 것.

1948년 10월 23일 17시 광주에서 홀리로부터 로버트 대장에게 : 약 400의 국립경찰과 오늘밤 여기에 약 100명의 임시군대를 구성하라, 그것으로 충분할 것.

1948년 10월 23일 18시 12분 김포 CIC로부터 받음 : 속보 #171 : 10월 23일 16시 35분 광주상공에서 관찰. 순천에 고문관과의 라디오 대화 : 광주는 아군에 의해 접수됨을 보고. 광양에서 75명 포로 사로잡음.

1948년 10월 24일 15시 30분에 24군단 G-2로부터 받음 ; 서울의 PMAG 전갈에 따르면 광양지역에서 2,000명의 반도들이 40대의 US 트럭보다 많은 곡식과 무기를 가지고 백운산, 미송면에 집결 중. 반도들은 지리산으로 들어갈 것이라 짐작됨. 상황은 나빠지고 있음. 1948년 10월 23일 18시 구례의 반도들은 광양군 다압면의 마을 외곽으로 주민들을 몰고 있음. 반도들이 이 마을에 머무르는 중.

1948년 10월 23일 18시 21분 그린우드 소령으로부터 받음. : Senior US Officer 현재 순천상황 만족스럽다고 말함. 여수상황은 단정할 수 없음. 광주의

지역상황은 제어 안됨.

1948년 10월 23일 21시 35분 PMAG의 로즈 중위로부터 받음 ; 10월 23일 20시에 "천안시" 여수 수송함 : 해안경비대 감독관은 여수로 보내짐. 11시 폭도들과 14연대. 무기와 탄약이 폭도들에 의해 사용된다고 보고. 보고는 어부가 질문한 것과 동일함. 감독관은 15연대 보고. 순천에서 700명 교전.

1948년 10월 24일 8시 35분에 시몬즈 대위가 의무장교를 불러 받은 보고에 따르면 ; 해안경비대 함선 "안성시"가 여수로부터 부산항에 사망자 4, 부상자 6을 포함한 경비대원 85명을 싣고 도착. 74명 일반병과 2명의 장교는 함선을 타고 여수항으로 출항. 이 부대들은 폭도들을 진압하기 위함. 부산에 도착한 시간은 1948년 10월 23일 20시.

10월 23일 21시 작은 배 한척이 해안경비대의 기관총에 맞아 화재. 아무런 피해 없음.

AKAZ-Marine라디오 신호국 ; 10월 23일 23시 11분 3여단 고문에게 "천안시"로부터 온 메시지 받음 : 14연대 조사. 군사들이 수송함 "울산시"에 도착. 적들은 좌익행위 의심. CIC 대로우 대위 제안.

울산에서 Port Supt. "울산시"로부터 10월 23일 23시 11분 : 한국군의 명령에 의해 우리는 10월 23일 20시 여수로부터 부산으로 돌아가기 시작, 그리고 우리는 작전중 2명의 부상자와 4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75명의 군인들을 실음. : 10월 24일 8시 부산 ETA-Master

p.22

10월 23일 24시에 하동의 3여단 고문에게 15연대 신 중령으로부터 받음 ; 적들이 백운산으로 이동중. 적 부대는 대략 1,000쯤 되는 정예. 적들은 백운산에서

탄약과 군수품을 수송. 적들의 계획은 광양을 통해 지리산으로 이동하기 위함. 경찰부대는 약 300. 신 중령은 다음과 같이 제안 : A. 우리 부대는 광양으로 가서 도로를 차단함. B. 광양을 지속적으로 공격. 교전의 결과는 이후 지면으로 보고 할 것임.

구례로 보내는 감독관. 송석하 소령이 순천에서 1개 대대 지휘함을 보고. 경찰부대는 여수를 접수. 6연대 1개 대대 구례를 통해 순천으로 이동 중. 3여단에서 밴드와 모터 부대가 순천을 향하여 출발.

p.23

1948년 10월 24일 17시 15분에 24군단으로부터 7번째 Div. 경찰 수뇌 : 1948년 10월 24일 1시 대략 225명의 반도들이 광양의 경찰서. 다압지서 가까이에 화개지서(하동경찰서. 아래에 있는)를 향하여 공격. 경찰은 반도에 대항하여 공격. 반도들은 새로운 공격을 준비중.

그린우드 소령으로부터 전갈 : 1948년 10월 24일 1시 42분 : 2개 국방경비대 소대들이 오늘 4시에 보성 외곽에 도착. 상황은 애매함. 경비대의 지휘장관은 순천을 공격하는 우리 군대가 성과 있다는 정보가 없다고 말함. 접근 공격은 아직 시작하지 않음.

24군단으로부터 받음 - 라이트 대령에 의해 PMAG로부터 10월 24일 4시 속보 #177 : 5여단 순천에서 적과 교전 중. 작전 소탕중. 192명 생포. 적들은 시민처럼 옷을 입고 무기를 버리고 남서쪽과 동쪽으로 도주 중. 경비대는 피아를 구별하기 어려움. 많은 시민들이 순천에서 적에게 협조.

순천에 4연대 2개 중대가 있음 : 3연대의 2, 3 대대 : 12연대의 2, 3 대대, 6연대의 1대대. 모두 5여단 참모장의 명령 대기 중.

보성에서 4연대 2개 중대. 알 수 없는 연대의 2개 중대. 광양을 향하여 적들을 추적중. 15연대의 대대로부터 전갈 없음. 광양 가까이에 있음을 보고. 순천에

서 모든 최소단위 편대는 보성 방향 공격할 것을 준비.

보성에서 200정규군과 300시민들, 적, 초등학교운동장에서 소수의 적들이 보성, 별교리 그리고 낙안사이로. (PMAG Hq.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없음)

낙안에서 아군 선전이 시민들에게 살포됨. 시민들이 아군일지 적인지 모름. 여수에서 적들은 지금과 동일함.

1948년 10월 24일 5시 31분 그린우드 소령으로부터 받음 : 상황 변화 없음. 순천의 남쪽과 서쪽 공격은 아직 아침까지 작전. 오늘 순천으로 향하며 울촌 이동. 통신 때문에 오늘 여기로 돌아갈 것으로 보임.

포저 중위로부터 1948년 10월 24일 9시에 받음 ; 아군이 보성을 공격 중. 저항은 그다지 없는 것으로 보임. 마을 동쪽 외곽에 군대 8시 55분 관찰.

1948년 10월 24일 15시 35분에 24군단 G-2로부터 받음. : 10월 24일 11시 13분 보성 탈환. 이 메시지는 24군단에서 받은 대로 나타냄.

1948년 10월 25일 0시 10분에 24군단 G-2로부터 받음. : #305 선장으로부터 보고 : 24일 16시 10분 여수 남쪽에서 #305 Harbor 9명의 군인과 약간의 무기를 가진 2척의 반도들의 배를 잡음. 무기의 숫자는 모름. (해안경비대 보고)

1948년 10월 24일 16시 55분 서울 PMAG Hq.로부터 정보. 1948년 10월 24일 17시 10분에 받음. 시몬즈 대위로부터의 전갈 : 아군의 보성, 부대는 알려지지 않음. 인천 외곽에 적재 ; 해안경비대가 사용할 12개의 37구경 총과 25개의 기관총

10월 24일 13시 아쳐 지휘관으로부터 받음 : 여수반도들은 40구경 총을 지님.

p.24

1948년 10월 24일 15시 30분에 받음 : 서더랜드 대위가 아쳐에게 :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는 더 많은 수송함을 이 항구에 보내는 것. 끊이는 것은 효력 없음. 필수품은 보병에게 순찰함을 보급하는 것. 수륙양용의 효과적인 부대가 이 작업에 48시간이내 안전할 것.

첩보기관이 물가에서 어제 반도들을 가장하였음. ... 마을은 반도들이 조정하는 아래 있음을 확인. 또한 잘 알려진 푸른 제복을 입은 남조선 청년들과 고등학교생들도 일부 있음.

1948년 10월 25일 0시 10분에 24군단 G-2로부터 받음 : 부산 Div. 경찰로부터 보고 ; 대략 600명의 경찰들이 지금 하동에서 대략 1,000명의 반도들과 교전 중. 경찰은 이 정보를 1948년 10월 24일 22시 15분에 받음.

1948년 10월 25일 0시 10분에 24군단 G-2로부터 받음 : 1948년 10월 24일 20시 PMAG로부터 받음 : 14연대 임시대대 작전이 산전리에서 7대의 2.5톤 트럭을 노획. 이 대대는 광양으로 오늘밤 돌아갈 것임. 1개 대대. 12연대 300명. 24일 17시 5분 아직도 OKOK(알 수 없음)에서 적과 함께 교전 중. 적들은 강하고 또 알 수 없음. 15연대로부터 대대. 600명은 11시에 광양 남쪽으로 하동에서 출발

p.25

1948년 10월 25일 6시 45분 하우스만 대위 : 3연대 1대대. 선천으로부터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적과 낙안 - 벌교리 지역에서 접촉하고 보성의 서쪽으로 그들을 이동중. 보성 부대는 경계하도록 하고 적을 봉쇄하길 시도하라.

김대령과 두 개 소대 병력은 Rcn. 최소편대는 여수로부터 5마일 떨어진 곳에 배치하며 진군. 10월 25일 6시에 현재 병력과 Rcn.과 함께 공격할 것. KCG Hq.는 특수기동부대와 접촉하고 6시에 착륙을 보류할 것을 지시할 것.

목포기지를 통해 접촉하는 것을 시도하라. 홀러 대령은 지역관찰과 정보대장

을 기초로 함. 여수반도에 있는 야전병력의 지휘대장은 200~300. 이 병력의 포위를 위한 좋은 작전은 아침에 전달된 것임. 여수 아군병력의 일부가 순천의 북동부로부터 철수하는 작전후일 것임. 최근 부산의 KCG Hq.로부터의 보고들, 수륙양용의 공격병력이 여수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진술과 부산으로 돌아갔다는 진술. 우리는 이전에 작전한 대로 6시에 공격할 것임. 김대령과 홀러 두 사람의 진술은 상황을 순조롭게 만듦.

25일 15시 35분 CG, PMAG으로부터의 전갈 받음 : 4연대의 대대. 백운산지역에서의 공격에서는 북쪽으로 10킬로미터 진격하였음. 여수 특수부대는 10월 25일 11시 여수의 변두리로 진입. 가벼운 저항이 있었음 - 하우스만

1948년 10월 25일 9시에서 7번째 Div. G-2로부터 속보 #194 24군단으로부터 받음 : PMAG 게일 소위에 의해 보고 : 1948년 10월 25일 6시 여수에 대항하여 수륙 양육작전이 진행된다는 보고. 충실한 부대로 평가되는 1개 대대에서 두 개 도시사이에 규모를 알 수 없는 반도의 무리를 공격하기 위해 보성을 향하여 순천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이동 중.

1948년 10월 25일 9시 35분에 PMAG로부터 속보 #195 24군단 G-2로부터 : 가바나 소위에 의해 보고 : #302 수송함의 선장으로부터, 10월 24일 20시에 PMAG에 의해 10월 25일 9시 34분 보고 : 반도의 배 한척이 강하게 무기를 갖고 여수항으로부터 탈출을 시도. 수송함 #302와 #304는 후미를 공격함. 적들은 약간의 타격을 당함. 수송함은 손해 없었음.

10월 25일 10시 "천안시", 대로우 대위로부터 출처, 로스 소위로부터 : 군대의 사기는 높음. 군인들은 싫증냄. 이 소위와 17명의 위생병은 왜관 배에서 군수품과 함께 도착했음. 정보를 나누기 위해 순찰하고 아군과 접촉하기 위해 시도함. 우리는 지금 해변의 정찰대에 있음. 명확한 지시는 모든 것이 좋은 상황인 여단으로부터 받음.

탄약 요청이 로즈 소위에 의해 10월 25일 10시 서울로부터 받아들여짐 : 카빈

100,000 고리, 37밀리 고폭탄 3,000고리.

1948년 10월 25일 11시 30분 "천안시" 배로, 대로우 대위로부터 : 하동에서 순찰 접촉중인 6연대 신 대령 순천에서 보고. 6연대, 15연대와 통합 조정. 착륙 전에. 여단의 지시로 37밀리 고폭탄 도착 고대. 더 많은 시간 부대와 함께 통신하길 요청함. 10개의 기관총이 여수주변에 배치.

37밀리 고폭탄이 도착할 것. 이 박격포는 진해에 배치할 것. 대답 없음. 부산으로부터 고폭탄 3,000고리 열길 시도.

10월 25일 12시 40분 마산에서 시몬즈 대위를 경유하여 로즈 소위로부터 받음 : 15연대 1대대가 하동으로부터 광양으로 이동. 아군은 하동에서 돌아오는 대로 만나게 됨. 경찰방어는 광양주변을 둘러싸고 설치 15연대 1대대는 지금 경찰의 엄호를 받으며 광양으로 이동 중. 대략 1,000명의 반도들이 지역에서 산악지역을 향하여 북동으로 이동 중.

p.26

10월 25일 09시 25분 김대령으로 부터, 12시 40분 Rose중위로부터, 여수의 "천안시" : 10월 25일 오후 여수에 정부군 도착 예정. 포 없이 상륙하는 것은 불가능. 반란군들은 여수에 집결해 있음. 포병을 요청. 여수에 반란군이 1000명이 있으며 학생과 시민을 포함하고 있음. 10월 24일 24시 장교 1명과 지원병 4명이 순천 서쪽 방면에서 정부군과 접전.

1948년 10월 25일 14시 광주에서 서울로 보내는 Patterson대위의 무전을 도청한 보고. 이 메시지는 CIC정보원에 의해 Mark라는 신원미상의 남자에게 보내진 것임. 여수의 상황은 2개 대대가 06시 30분에 여수 북쪽으로 8마일 지점에서 공격을 개시했다. 순천에서 반란군에 의해 150명이 사살됐음. 군 내부의 보복살해임.

10월 25일 09시 30분 제 5연대 함장 여수지역 사령관인 김대령으로 부터 온 무선 메시지 :

1. 정부군이 25일 오후 여수지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임.
2. 가능한 한 빨리 진해에서 포를 보낼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적을 공격할 수 없음
3. 반란군은 여수지역에 집결해 있고 해안 기슭에 있는 우리 군 역시 적을 공격하지 못하고 있음.
4. 북한 사람들을 포함한 무장 반란군은 대략 1000명 정도 임.

p.27

1948년 10월 25일 14시 제 5연대 사령관 "천안시" 전함에 있는 김대령에게 보내진 무선 메시지 :

1. 다음은 순천 제 3연대 비밀정보취급허가부서에서 제공된 정보임.
2. 다음은 남쪽을 공격하는 군의 위치임 : 하동의 제 15연대, 광양의 제 12연대, 그리고 사령관 휘하에서 전면공격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순천의 주력군.
3. 주력군에 의한 전면공격이 시작되자마자 우리 여단은 함포 공격의 도움과 함께 상륙할 것이다.
4. 정부군의 상징을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기를 위 아래로 흔드는 것으로 결정됐다.
5. 제 3여단에 명령된 실패한 상륙 시도는 총기의 약한 화력때문이다. 아군에게는 피해를 전혀 주지 못했으며 적에게는 약간의 피해를 줬다. 그것은 민간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한 것으로 보여진다.
6. 이 정보는 즉시 서울의 총사령부(General Hqs)에 전달되어야만 하는 것임을 요청함.
7. 우리에게 중화기가 공급되자마자 우리의 장교들과 사병들은 여단장과 함께 싸우다 죽을 각오가 돼있다.
8. 기관총을 즉각 제 2중대에 보낼 것을 요청함

10월 25일 16시 10분 임시군사고문단을 통해 국방경비대로부터 받은 보고 : Ren.부대가 14시에 여수에 진입했으나 철수함. 몇몇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목격됨. 본대가 여수로부터 1.5마일 떨어진 고속도로 동쪽과 서쪽을 공격중이며 중화기와 자동화기를 받은 상태임. - 그린우드

10월 25일 15시 35분 임시군사고문단을 통해 받은 보고 : 백운산지역에서 공격중인 제 4연대는 가벼운 저항을 벗어나 북쪽으로 10Km지점에 도착했다. 여수 공병대는 06시에 공격을 개시했다. 10월 25일 11시 여수교외에 들어서서 가벼운 저항이 있었음 - 하우스만

p.28

10월 25일 20시 50분 통신국으로부터 온 보고 : 여수 공격은 1000명에 달하는 적들의 단호한 저항에 부딪혀 느리고 어렵다. 공격은 여수 변두리에서 중단됐으나 새벽에 재개될 예정이다. 오늘밤에 증원될 것 임. 보다 소규모의 부대가 앤더슨 캠프를 공격하기 위해 여수를 우회할 것이다. 순천 북동지역에서 유일하게 소규모의 산개한 저항이 있었으나 보성 - 순천지역은 전혀 없다. 곡성은 10시에 점령한다. 여수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살해는 순천과 같은 방식을 것으로 예측된다.

10월 25일 17시 임시군사고문단을 통해 국방경비대 공병대로 온 보고 : 정부군은 1948년 10월 25일 16시 2개의 북쪽 산과 여수 도심지역을 점령했다 - 그린우드

10월 26일 18시 50분 임시군사고문단을 통해 공병대로 온 보고 : 구례의 활동 요약. 구례의 도심은 25일 20시에 권총과 기관총을 소지한 이동중인 소규모 반란군의 공격을 받았다. 병력의 규모는 60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그 부대는 그 마을을 공격해 지방 경찰과 주민들을 공포상황에 빠뜨렸으며 새벽에 산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적어도 한 개의 건물을 불태웠다. 미공군 정찰기가 26일 16시 35분에 남한 국기가 필력이 3/4톤 트럭 한대를 구례의 도심 광장에 주차돼 있

는 것을 확인했다. 경비대 복장의 8내지 10명이 트럭 부근에서 있었다. 길거리에 민간들이 있었으며 그들의 움직임은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관찰됐다. 적병의 한글보고서가 번역과정에서 지나치게 과장됐음을 암시하라 - 그린우드

10월 25일 24시 "천안시"호에서 제 3여단 사령부로 온 보고 : 송호성 장군의 메시지를 여수로부터 10마일 떨어진 학용리 소재 정부군에 보고함. 제 5연대는 여수에 정부군이 진입할 때까지 상륙하지 말라고 명령함. 장교 한 명과 EM포로가 잡힘. 해안경비대가 60명의 포로를 잡았다. 우리는 그 항만을 순시하고 있다. 반란군들이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 선장

p.29

26일 10월 15일 콜드웰 소령으로 온 전신 213호 : 정기보고 22호 : 다음은 10월 26일 08시 30분 트루덴 중령의 보고임 : 남한철도가 순천에서 10월 26일 7시 첫 운행. 6032호 기차는 이리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32호 기차와 연결된 북쪽으로 운행하는 여객차임. 승객들은 대한노총원들, 기자, 경찰, 4명의 미국인을 포함하고 있었음. 4506호 기차가 대전교도소로 가기 위해 여수, 순천관내 400명의 죄수를 싣고 어제 나주에서 떠나 10월 25일 22시 40분에 대전에 도착. 순천으로의 철도 전차는 1948년 10월 26일부터 개통. 순천의 역 건물을 포함한 철도는 재개됐으며 장비 또한 평상시처럼 별 문제없이 가동됨.

제 3여단 임시군사고문단 아처 사령관의 메시지 : 해안경비대 여수에서 달아나려는 두 척의 배를 가로막아 사로잡았음. 8명의 국방경비대원들과 일련번호가 없는 M-1소총과 탄약을 노획. 여수와 진해의 폭도들과 좌익들이 가덕도에 몰려 들고 있음. 가덕도에 스파이 한 명을 상륙시키기 위한 수송을 요청함.

다음은 베이커 대위의 항공 정찰 :

여수 : 1948년 10월 10시 35분 :

항만에 배 없음. 부두에 어떤 움직임도 없음. 건물에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음. 건물 정면에 한 대의 지프차와 트럭이 있으며, 그 트럭 후위에 100명의 민간인이 줄을 늘어서 있는 것이 관찰됨. 그 트럭은 붉은 기를 꽃고 있으며 지붕에는 한글이 씌여 있었음. 기차 터널 북쪽에 2.5톤 트럭이 주차돼 있었음. 도시의 북동쪽과 남동쪽 고지대에서는 적군이나 정부군 모두 관찰된 바 없음. 도심에서는 보통 시민이 활동하고 있음. 대략 150-200명의 민간인들이 여수 - 순천간 도로를 따라 도시를 떠나고 있음. 여수에서 북서쪽으로 대략 5마일 지점에서 일단의 국방경비대원들이 여순간 도로를 따라 남동쪽으로 이동 중이었음.

p.30

10월 26일 11시 35분 순천에서 베이커 대위의 항공 관측 : 시 남동쪽 외곽 길을 따라 70내지 75구의 시체가 놓여 있음. 그들은 시신이 덮여있지 않은 걸로 보아 민간인들이었음. 수많은 남한 국기들이 도심 전체에 펄럭이고 있었음. 도심 안에 방어진점이 확정되고 병력이 배치됨. 12대의 2.5톤 트럭은 POL 덤프였음. 민간 버스 한 대가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의 중간지점에서 불에 탔음.

임시군사고문단 제 3여단 "찬안시"호 데로우 대령의 메시지 : 배는 앤더슨 캠프 반대편 여수 서쪽 4마일 지점에 정박했음. 해변은 좋은 상황은 아님. 해안경비대에 사로잡힌 포로에 의하면, 지역 내에 1200명의 폭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앤더슨 캠프에 4문의 기관총을 소지한 적군의 무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로버트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상대방에 전달함. 데로우 대령 - 1948년 10월 26일 12시

임시군사고문단 제 3여단 "천안시"호 데로우 대령의 메시지 : 단 한 명의 무선통신사를 확보하고 있음. 한 명을 더 구하기 위해 노력 중. 여수 지역에서 해안경비대와 국방경비대에 의해 사로잡힌 죄수는 45명. 노획한 탄약이나 무기는 없음. 무선통신은 하루에 17시간 사용. 이제까지 매 3시간 내지 4시간 간격으로 메시지를 보냄. 매일 14시에 메시지를 받음. 특별보고 - 데로우(10월 26

일 14시)

10월 26일 14시 공병대에서 해안경비대 임시군사고문단로 보낸 메시지 : 현재 구례를 점령하고 있는 반란군 1개 대대에 대한 언급. 우리의 주의를 그 지역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의 전술적 계획의 주요한 부분이 의미한다. 이날 13시 30분에 우리는 광주에서 구례로 350명의 병력을 이동시켰다. 이 부대는 15연대의 1개 대대와 제 3연대의 1개 중대를 증원해 현재 그 지역에서 작전중이다. 우리는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대략 300명의 반란군이 순천 남서쪽으로부터 이동하다 우리 군과 마주쳐 큰 전투를 치른 후 백운산 지역으로 퇴각했다. 어제의 작전은 반란군들을 함정에 몰아넣는 것이었으나 결과는 교전이 없었다. 그 지역 안과 주변의 민간인들이 반란군들이 각각 2, 30명의 소그룹단위로 나뉘어 흩어졌다고 언급했다. - 그린우드

p.31

10월 26일 14시 5분 그린우드 소령에게 보내는 메시지 : 나는 여수에서의 반란군의 활동이 줄어 반란지구로 흩어져서 광양 - 구례 - 하동 삼각지역의 산으로 잠복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소규모의 부대는 기습과 지역 교란 능력이 약화된 시점이다. 중대 규모의 군대와 고정적 접전이 없는 것을 기초로 볼 때, 대부분의 적들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 그린우드

10월 26일 14시 20분 임시군사고문단 사령부 G-3의 메시지 : 반란군을 실은 대략 50대의 트럭이 구례 북쪽 외곽지역에서 남원으로 이동 중. 대구에서 안위 남서쪽 RJ로 향하는 1개 중대가 그 길 동쪽 고지대를 따라 행군하는 것으로 입증됨. 우리 군이 여수 안에서 공격 중.

백운산 지역에 대한 베이커 대위의 15시 공중관측 : 산중에서는 어떤 활동도 포착되지 않음. 네 명의 경찰을 태운 지프차 한대가 화개장 - 하동간 북동쪽 길로 이동 중.



여수지역에 대한 베이커 대위의 15시 15분 관측 : 해안경비대의 배 한 척이 해안 기슭으로부터 대략 1000야드 떨어진 곳에 정박했음. 배에는 남한 국기가 펄럭임. RR역에서 기차 한 대가 증기를 내뿜고 있음. 도시의 길거리는 적막함. 세대의 장갑차를 소지한 부대가 여수 - 순천 간 도로에서 여수 북서쪽으로 3/4마일 지점에 도착. 본대는 48대의 2.5톤 트럭과 11대의 지프차를 끌고 같은 도로에서 여수 북서쪽으로 1.5마일 지점에 있음. 여수의 건물이 인공기로 덮여 있음.(같은 보고가 좀 전에 있었음). 건물 정면에 두 대의 트럭과 두 대의 트럭이 주차돼 있음. 여수 북동지역 변두리의 산에 비행기에 의한 폭격이 있었음. (적은 무기들) 정체를 알 수 없는 몇몇의 강력한 적이 이 산에 배치돼 있음.

p.32

10월 26일 16시 40분 24군단에서 온 속보 220호 : 여수와 진해의 지도자들이 가덕도로 집결하게 위해 이동 중.(F-6)

10월 26일 20시 17분 그린우드 소령의 메시지 : 오늘 여수에서의 공격은 성공적이었음. 도심의 두 지점으로 진입했음. 맹렬하고 끈질긴 저항이 18시까지 계속됨. 지난 밤 활동은 외관상으로는 소규모 부대가 백운산 지역으로부터 작전 중이었음. 정부군과 16시 38분 동안 작전을 같이한 미공군 연대 그린우드의 판단에 의하면 구례는 평온하다는 보고 있었음.

p.33

10월 27일 PMAG로부터 #232 접수받음 : 서울경찰은 10월 27일 8시 20분에 다음과 같은 것을 접수 : 철도경찰은 10월 26일 7시에 구례를 점령한 후(10시 40분부터 13시 50분까지) 반란군들은 폭도들에게 경찰을 남겨놓고 철수. 반란군들의 일부분은 구례 동쪽의 해인사로 갔고, 또 다른 무리는 지리산으로 갔다. 남원의 경찰력은 구례 철도경찰을 26일 17시에 점령하였다. 적은 관찰되지 않는다.

중대는 작전을 위해 남원에서 철수하였다. 남원 국방경비대는 27일 17시에 구리로 돌아갈 것이다.

보고서 번호 238번은 10월 29일 19시 40분 CIC 971번째가 원인이 된 26군단으로부터 접수. : 238번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1948년 10월 26일 국방경비대 450부대는 구례에 있는 철도경찰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 나서 좌익분자를 구례에 넘기고 지리산으로 갔다.

#230은 G-2, 10월 27일 12시 20분 중대 3대대 PMAG로부터 대전으로 10월 27일 11시 45분 : 반란군들은 구례로 어제밤 이동하고 있는 중 구례 북쪽으로 도중. 이 날 오전 순천에서 저격수들이 활동 개시 여기까지가 여수에서의 정보. 별 이상 없고 조용한 상황. 반란군에 의한 조직적 저항 없음. 지속적이고도 수시로 있는 저항은 여수, 순천, 구례와 남원쪽에서 예상됨.

항공기에 의한 1948년 10월 27일 11시 45분 남원 상공에서의 관찰 ; 모두 이상 없음. 군대는 보이지 않음. 마을의 움직임도 평시와 같음, 철로 내에서 남조선의 깃발이 보임.

10월 27일 12시 15분 구례 상공에서 항공기에 의한 관찰 결과 : 모두 이상없음. 군대도 보이지 않은 많은 아이들이 무료학교운동장에서 떼지어 있음. 비행기는 고도 1,000피트 상공을 3회 선회함.

천안시 가까이에 있는 PMAG 고문으로부터 받음 : 여단지시 아래 여수 포격. 현지에서의 정보는 아님. 총 죄수 63, 탄약과 무기는 없음. 여수를 내려다보는 아군 부대를 발견했음. 또한 산에는 남조선 깃발. 더 자세한 상황은 나중에. 아군과 접촉했음. ...

p.34

CIC로부터 #229 24군단으로부터 받음. 개성사무소의 그라함(Mr.Graham)에 의해 보고서가 작성된 10월 27일 12시 20분. 개성지역에서 최근에 체포된 여수지역에서의 국방경비대 탈영병에 의하면 35명의 반란그룹들이 반란을 시작한 이후 순천지역을 접수하기 위해 보트로 인천 북서부에 위치한 강화도에 숨어들었다고 함. 이들 중 15명은 강화도의 조용군 토리, 매은리, 삼산면의 마을에 있고 이 15명은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있다고 증언되고 있다. 토태 이안리, 계동면, 강화도 도내 경찰은 잔류자를 신고받고 조사하고 있다. 노트 ; 인천에서의 어려운 점은 아마 이 그룹이 있어서일 것이다.

1948년 10월 27일 12시 20분 지리산 상공에서 항공기에 의해 관찰한 결과 ; 모두 이상없고 동태 없음. 그러나 위치에서 두 대의 지프가 정남향으로 가고 있었음. 경찰 1인과 민간인이 첫번째 지프에 탔고 3명의 민간인이 두번째 지프에 승차해 있었음. 비행기가 보이자 지프들은 멈추었고 지프를 타고 있던 사람들은 비행기를 보았다. 지프가 갔던 길로 확인할 수 있었던 성과는 산악지역인 탓에 별거 없었음

1948년 10월 27일 12시 50분 순천 상공에서 항공기로 내려다본 결과 : 여수 : 대략 125명이 북서쪽 여수외곽 언덕에서 북쪽으로 가고 있음. 어떤 식별도 가능하지 않았음. 관찰가능한 경찰제복이 아님.

천안시 외곽의 PMAG 고문으로부터 받음 : 여수는 우리 것. 죄수들은 셀 수 없음. 아군과 잘 접촉함. 3연대 1중대. 무어(Moore)대위는 특별임무로 돌아옴.

진해발 비행기의 보고에 따르면 : 14시 20분 여수 상공 대략 시의 1/4이 불에 타 파괴됨. 부두까지 불에 탐. 남조선 수송함 한 척은 부두가에서 약탈. 거대한 2.5톤 트럭들은 남조선 깃발을 시내에 뿌리고 있었음. 전체 1,500~2,000의 세 거대한 그룹의 조선 경찰이 지키고 있음.

p.35

1948년 10월 27일 2시 20분 여수상공에서 항공기 관찰 결과 : 여수해안 방어 함선은 해안가에서 2000야드 떨어진 만(灣)에 닻을 내림. 남조선 기가 휘날림. 부두에 묶인 한 대의 수송함. 여수 북서쪽에서의 작은 부락은 완전히 불에 탐. 대략 여수의 1/4이 전소됨. 불은 부두창고에서 일어났음. 남조선 깃발은 시내 전역에서 보임. 2.5톤 트럭이 남조선깃발을 시 전역에 뿌리고 있음. 대략 1500~2,000명 규모의 큰 세 그룹의 시민들이 제각기 있음. 캠프 앤더슨 동태없음. US L-5 14시 20분 캠프 앤더슨 활주로에 착륙.

1948년 10월 27일 14시 45분 백운산 상공에서 항공기 관찰 결과 : 보고할 만한 사항 없음.

1948년 10월 27일 14시 45분부터 15시 10분사이 백운산 상공에서 항공기 관찰 결과 : 이 지역 상공에서 백운산 지역을 날다. 그러나 동태 관찰되지 않음.

광주 하우스만 대위는 대략 400 폭도와 좌익들이 지리산과 백운산 사이에 위치해 있다고 진술. 15연대의 480명과 RCN 중대는 반도소탕을 위해 시도할 그 지역에 있음. 광주에서 10월 27일 15시 5분의 확인은 여수가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1948년 10월 27일 15시 15분 구례 상공에서 항공관찰 결과 : 거대한 남조선 깃발이 도시에 뿌려짐. 18대의 2.5톤 트럭이 마을을 가로지르고 다님. 조선 경찰 도시의 1개 대대로 추정됨.

1948년 10월 27일 15시 50분 구례 상공에서 항공관찰 결과 : 거대한 남조선 깃발이 도시에 뿌려짐. 18대의 2.5톤 트럭이 마을을 가로지르고 다님. 마을에선 대략 1개 대대, 국방경비대

스미스 대위는 한국군 지휘관이 군수품 열차수송은 한국군이 파괴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진술했다고 보고. 기차는 엔진과 탄약 박스차, 그리고 승무원 객차로 구성되어 있음. 10월 27일 15시 50분 이리 - 순천간 북부 5, 6번째 역 사이에 있는 괴목과 구례구 사이 탈선. 기차는 순천에서 곡성으로 가던 것. 순천에서 남원으로 가는 3/4지점. 기차 파괴는 움직이는 선로가 원인이 됨. 조만간에 복구. 남조선 국방경비대는 파괴된 상황을 복구하고 있음 시간 00시 35분.

1948년 10월 27일 20시 5분 지리산 상공에서 항공기 관찰 결과 : 지리산 지역 보통의 시민 동태. 깃발은 보이지 않음.

1948년 10월 27일 15시 55분 여수에서 시행된 TG HQ 국방경비대에서 국방경비대의 사고보고서 : 사망자 10 부상자 50

p.36

1948년 10월 27일 17시 45분 부산 국방경비대 3여단으로부터 받음 : 반도들은 하동에서 고창으로 약 40대의 트럭을 가지고 파괴하며 도주 중. 기차는 대구 6연대에 의해 끊김. 폭도들이 주둔지 마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함.

아쳐 사령관으로부터 20시 5분에 받음 : 35명의 경비대 반도들, 37명의 시민들, 4척의 배(대략 해양경비순찰함 정도 크기의)가 여수만에서 체포.

10월 28일 1시 10분 서울의 PMAG의 D.O.으로부터의 전갈 : 여수는 완전히 안정됨. 내일 아군의 순천, 구례, 하동의 적들을 소탕할 것. 특수장교대표. 27일 20시 35분

3여단 고문관으로부터 : 15연대 발발 27일 21시 15분 : 하동에서 탈출했다가 돌아간 15연대로부터 잡혀온 하사관 두 명. 400 반도들이 지리산 북동부로 진군 중. 북조선으로부터 반도 CO. 무기는 카빈과 M-1, 화기부대와 약간의 사람들. 150 rounds. 구례 - 순천 - 하동 북쪽지역의 반도 400. 15연대의 2개 중대가 지

리산 북동부로 이동중인 반도들의 대오를 차단하기 위해 경계중. 폭도들은 또한 라디오와 3개의 중화기 타입과 알 수 없는 직경 하지만 탄약은 풍부하게 가지고 있음. 이 두 죄수들은 동시에 연대 CO로서 BN CO...(해석미비) 채 대령이 3여단 고문관에게 : 3여단 27일 21시 40분 : 철도경찰과 접촉 그들은 서울에서 보낸 전갈에 대해 무엇인지 누가 보낸 것인지 알지 못함.

10월 28일 12시 40분 정보 제1연대로부터 받음 : 10월 27일 23시 3명의 장교를 포함한 국방경비대 80명 충원 대구를 떠나 안위로 이전의 파견 증원을 위하여 그 지역에 급파. 불충실한 경비대가 수송하는 트럭 40대가 안위의 서쪽 마을에 도착했다는 것과 군대 증원의 원조가 필요함을 보고해왔다. 그러한 급파는 이 지역의 이 그룹에 대한 공격을 하기 위함이고 곧 실행될 것.

p.37

10월 28일 8시 55분 기동부대 로저로부터 받음 : 밤 동안 변화 없음. 지속적인 작전의 재편성이 남원 - 구리 - 그린우드를 잇는 적색 EM 더 많은 소탕을 위해 놓아둠.

CG에서의 10월 28일 22시 그린우드 소령에게서 받음 : 곡성에서 고문이 19시 30분에 이날 아침 2개 중대가 구례로부터 노고단 사이를 순찰했음을 보고 받음. 문수리에서 이 부대는 400명 반도들과 마주쳐 교전하고 물리침. 3연대의 30명 사로잡음. 5LMGs, 30 cases of Cal., 탄약 30과 라디오. 모든 장비는 파괴되었다고 보고. 더 많은 주력은 며칠동안 이 부대에 의해 처리될 것으로 기대.

DIV 6번째 CG에서 그린우드 소령으로부터 받음 : 10월 28일 12시 15분 : 5~10쯤 되는 각각의 흰옷을 입은 거대한 소수 그룹이 구례의 북부, 북동부의 높은 들판에서 발견. 오늘 10시 45분 미 통신비행기에 의해 발견. 항공기 접근을 시도. 전체지역에서 어떤 동태도 보고되지 않음. 어떤 특수한 명령을 내게 내릴 것인가? 지면상 응답이 지연되고 있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음.

1948년 10월 28일 10시 50분에 부산 CIC로부터 받음 : 1948년 10월 31일 또는 1948년 11월 1일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로부터 좌익대표자가 행상인으로 위장하여 부산과 대전사이의 철도수송을 절단하고 원동에서 철교를 파괴할 계획의 음모를 가지고 삼랑진 Japanese Isin-glass Factory 에서 만날 것이라는 소문이 있음. 서울의 사무관 김산직이 모임을 대표할 것. 김에 대한 정보는 다음에 : 대략 40세, 신장 5피트 8인치, 120파운드. 경찰과 CIC 은닉.

1948년 10월 28일 12시에 3여단 EX장교로부터 받음 : 송호성 장군은 지금 순천에 본부를 둬. 캠벨 대령.

대략 200명의 반도들이 달선도 수로를 가로질러 탈출. 최소단위 편대가 오늘 공격을 시도할 것과 깨끗이 소탕할 것

10월 28일 20시에 24군단 G-2로부터 받은 #224 속보 메시지 : 전주 CIC로부터 : 10월 28일 19시 청주 한국군 4연대에서 발생가능성 있는 봉기에 대해 10시 40분에서 15시 30분까지 무산시킴. 청주에서 주동급 몇몇은 체포. 서울에서 4여단으로 온 메신저는 전주에서 G-2에 의해 차단 당함. 추가된 정보에 따르면 참모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함.

p.38

아군 순천에서 재편성. 순찰대는 송호성 장군과 접촉하기 위해 순천으로 보내짐. 이 완전한 부대는 송호성 장군의 지휘 하에 있게 될 것. 다른 부대는 그들의 근거지로 돌아올 것임.

약 700의 불충실한 국방경비대는 지리산에 위치해 있다고 보고됨. 도로를 차단한 국방경비대는 함양에 자리잡게 될 것임. 음영리에 있는 합류지점에서 판독.

하동 도착 14시 45분. 도시는 고요함. 8대의 트럭이 학교운동장에 주차되어

있음. 방화나 평범치 않은 움직임 없음. 거리엔 비정상적인 군집 또는 탈주행위 없음. 다리는 방어되어 사라지지 않았음.

구례도착 15시. 약 15대의 트럭과 500명의 군대가 마을에서 보임. 매우 적은 숫자의 시민들이 거리에 있음 소대들은 별로 보이지 않고 경찰들이 순찰. 외견상 보이는 군대의 유입이나 철수는 없음. 몇몇 남조선공화국 깃발만 뚜렷이 보임. 학교운동장의 트럭들은 군대와 군장비를 싣고 있는 것으로 보임. 마을 중앙의 한 건물은 최근에 불에 타 없어짐. 사람들은 마을 주변의 들판에서 일을 하고 있음.

p.39

광주 도착 15시 30분 홀러(Fuller) 대령과 한국군 장교의 보고. 홀러 대령은 구례 남쪽 2킬로미터 지점에서 지난 밤 전투가 있었음을 보고 : 1명 사상 20명 부상. 20명의 반도들은 포로로 잡힘. 구례 주변은 전투가 빈번함. 노고단, 지리산, 구례 북동부 지역에서 전투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함. 반도들을 포로로 잡은 12연대의 채 대령은 구례지역이 안전하니 벗어나자고 이야기함. 그린우드 소령은 Sykes를 둘러싼 매우 작은 일들이 있다고 보고. 그는 많은 보고들이 확인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고 말함

광주 출발 16시 10분.

너무 늦어서 여수와 순천은 갈 수 없었음.

p.43

cg.의 애덤스대위로부터의 보고. 1. 구례, 남원, 운봉 항공정찰대의 수색 적들의 움직임 없음 - 1948년 11월 1일 12시 30분

지난 밤 매우 조용한 상황 구례 남동부 소탕작전 계속됨 1948년 11월 2일 8시 30분

p.48

cg.의 애덤스대위로부터의 보고. 1948년 10월 2일 21시

4연대 - 나주부근에서. 나주 남서쪽 산악지역에서 50명, 4연대 2개 중대를 나주로 보냄. 임시고문단은 구례지역에서의 14연대 반란군 23명 사살, 오늘 20명 체포했음을 보고받음 10명의 시민반란군도 또한 체포함 1948년 11월

광주 CIC로부터 11월 2일 23시 15분 26병기부로부터의 보고

나주 - 한국군은 약 50명과 함께 남서부로 도주했다. 오늘 17시 50분 보고

p.49

cg.의 애덤스대위로부터의 보고. 1948년 10월 3일 8시 30분

진정상황. 나주에서의 폭도 일부는 밤 동안 움직이지 않음.